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9년 3월 15일
1976년 4월24일 창간|월간|제372호
www.snua.or.kr

선배의 작은 정성 모아 큰 보람 이루기를!

본회는 지난 2월 20일 2009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재학생 1백17명에게 장학금 3억4백76만4천원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3~4면〉

관악춘추

졸업생 제군! 愚公을 배우라

대학 강의실은 4학년 2학기 때 큰 변화를 보인다.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의 고뇌와 방황으로 강의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다. 이윽고 2월말의 학위수여식을 끝으로 젊은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모진 세파와 맞선다.

금년은 2월 26일에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식전은 졸업생 5천여 명이 입장할 때 80인조의 관악합주단이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주하면서 막을 열었다. 그 당당한 서주부는 졸업생 제군의 전도를 축하해 희망과 영광을 표현했다. 뒤따라 테너 朴賢宰교수가 '쾌활하게' 부르는 玄濟明의 '희망의 나라로' 역시 기대와 희망을 고무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희망의 언덕을 찾아서 사회로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엄혹하다. 경제 한파로 고용의 문이 꽉 닫혀있는 형편은 숨이 막힌다.

우리는 젊은 관악인들이 지혜와 용기로 이런 시련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겨내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어리석은 90살 노인이 산을 옮겼다는 '愚公移山'의 우화는 刻苦하고 勉勵하는 인내와 작업의 정신을 표현한다. 우공은 가족을 모아놓고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큰 산을 옮기기로 결의한다. 그는 이렇게 믿었다.

'내 비록 얼마 못살고 죽지만 내겐 아들이 있다. 아들이 죽으면 또 손자가 있다. 우리 가족은 갈수록 점점 많아 질 터이고 산상의 돌은 갈수록 적어 질 터이니, 단지 결심만 세운다면 반드시 산을 옮길 수 있노라.'

일가는 고난과 辛苦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쉬지 않고 산을 파니 상제가 감복해 산을 옮겨줬다는 얘기다.

이 우화는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다. 하나는 각고면려의 정신이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이어가는 새 세대의 힘이다.

졸업생 제군, 우공을 배우기 바란다.

〈安炳璨논설위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2009년 3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의　　안 :

① 제11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②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 사업계획 보고

③ 기타 안건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동창회 153차·관악회 107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Inside　8 동문을 찾아서(黃健豪금융투자협회장) | 11 화제의 동문(黃迪仁동문) | 13 동문기업 탐방((주)에즈메드·KYK(주) 김영貴환원水) | 14 모교 소식(제63회 학위수여식)

느티나무광장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

李 元 燮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보 논설위원

金壽煥추기경의 선종은 많은 국민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모처럼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큰 어른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아쉬운 마음들이 끝없는 추모 행렬로 이어졌다. 경제 위기로 모두 힘이 빠져 마음 둘 곳을 모르고 있던 때 金추기경의 일생은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좌표가 됐다.

무엇이 국민들로부터 한마음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만들었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독재자 면전에서도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는 범인들이 좀체 따라 하기 힘든 일이다. 추기경이 국민에게 한결 더 친근하게 다가간 요소는 스스로를 '바보'라 표현하며 낮추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남이 우러르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 자칫 떠받들림에 익숙해져 '자존'에 빠질 수 있는데도 억눌리고 소외된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으려는 빈 마음이 특정 종교 수장을 넘어 온 국민의 어른으로 남게 했을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는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약하며 검소하게 산 모습이 더욱 인간적 매력을 풍긴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중흥 비전과 도약 플랜'을 선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동창회', '모교와 함께 하는 동창회', '동문에게 다가가는 동창회'를 기치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가 차지하는 위상이 남다른 만큼 총동창회 역시 그에 걸맞은 품격 있는 위상을 지녀야 할 것이다. 꾸준한 장학 사업으로 모교 후배들이 면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첫째 소임이다. 동창회가 소위 잘 나가는 동문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모임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서울대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모교 발전에 동참하고 헌신할 계기를 수시로 부여하는 전후방 기지가 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만의 자랑, 서울대 동문만의 자랑은 한둘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고, 그에 따른 혜택과 부러움, 대접도 받아 왔다. 반면, 서울대 출신이기에 느끼는 중압감이나 때로 사회생활에서의 역차별도 적지 않다. 다소 부풀려진 감은 있지만, 서울대 출신에게 따라붙는 '이기주의'란 오명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가장 지혜롭게 헤쳐 가는 길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낮추고 베푸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 냉철한 이성의 머리에 뜨거운 감성의 가슴을 열어야 주위에서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범인들이 감히 金추기경을 흉내 낼 수야 없겠지만, 먼발치에서나마 좇아가려 애쓰다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관악시단

三月은

柳 聖 圭(국어교육55-59)
시조시인·시조생활지 발행인

몸이 너무 무겁나요
일손을 놓으세요

어린이로 돌아가
그 옛날로 돌아가

세검정
맑은 물에다
발을 담가 보세요

햇살이 부서지는
흙담길을 돌아서

자하문 쑥냄새를
살짝 들여마시고

첫사랑
앵두발길을
다시 걸어 보세요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 행 인 林光洙
편 집 인 孫一根
인 쇄 인 朴鷹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02)702-2233 팩스(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鎭鋼, 李炯均, 宋丙洛, 安炳璨, 丘月煥, 宋鎭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裵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曺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李東官, 趙在鏞, 金鎭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 집 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동문칼럼

간호사 단상

宋 美 順
(간호70-74)
모교 간호대학 학장

간호학과에 발을 디딘 지 40년이 가까워 온다. 나이팅게일을 꿈꾸며 대학원서의 지원학과 란에 '간호학과'라고 쓰던 일, 3학년 초에 '일생을 의롭게 살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면서 가슴 뭉클했던 일, 졸업 후 첫 출근 날에 까만 줄 있는 간호사 캡을 쓰면서 자랑스럽고 설레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떠오른다.

필자는 간호학을 선택한 덕을 많이 본 사람이다. 미국유학을 하던 시절에는 대학원 다니면서 간호사로 취업해서 미국사람 수준의 월급을 받아 학비걱정 안하며 지낼 수 있었다. 내가 대학에 교수로 취업한 것도 간호학을 전공한 덕을 본 것이다. 30년 전에 여성취업의 벽이 높은 시절이었는데 간호학과는 여성끼리의 경쟁이라 남성에 밀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 인기 있는 대학의 학과에 진학한 여학교 친구 중에 대학에 직장을 얻은 친구는 매우 드물다.

내가 간호학에서 얻은 가장 큰 혜택은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일찍 깨달은 것이다. 간호학과에서는 3·4학년에 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아픈 사람, 임종을 앞 둔 사람들과 그 주변에서 같이 아파하는 가족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된다. 겨우 20살이 된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정말 드문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 생명이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일찍 알게 됐다.

해마다 우리 학과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중에는 간호학과 동문의 딸이 상당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즉, 동문의 남편)들이 딸이 엄마처럼 간호학과에 가기를 강력히 원해서 간호학과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간호학과의 교과과정은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학생 입장에서 고생스럽다. 취득해야하는 학점이나 실습이 많아서 3·4학년 때는 주 40시간 이상의 빡빡한 시간표를 견뎌야 하며 졸업 시에 간호사자격 국가고시도 통과해야 한다. 간호사로 취업하면 환자 돌보기가 어려운 것을 절감해야 하며 순번제로 밤 근무도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의사처럼 고액의 연봉에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어머니들은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딸이 간호학과 가는 것을 말리거나 '별로'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왜 딸에게 간호학과를 권할까?

이 대답으로 아버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간호사가 국가자격증을 받는 전문직이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이지만 이 외의 대부분은 간호사들의 성격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간호사는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고 또한 사람 사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들(연령에 따른 건강관리 방법,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편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다. 간호사는 직장에서 환자나 간호대상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직업인데 가족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산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데 어쩌랴 이것이 40년 전의 나이팅게일 선서 탓인지, 타고난 팔자인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것을…. 사실 내가 간호사로 살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간호사가 옆에 있어서 위안이 됐다'고 하는 말을 환자로부터 듣는 순간이었다.

나이팅게일처럼 훌륭하고 큰 일은 못한다 해도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삭막한 시기에도 취업 걱정 없고 평생 동안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직업이 간호사라면 정말 괜찮은 직업이 아닐까?

본회 林光洙회장이 장학금을 수여하며 재학생들을 격려했다.

모교 金信福부총장이 선배들의 고마움을 알아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선을 다해 자기 계발에 정진하길"

본회·단과대동창회서 2백19명에 장학금 5억3천여만원 수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2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1층 강당에서 2009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모교 재학생 1백17명에게 3억4백76만4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지·기금 장학금 수여 현황 4면 참조〉

이로써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재학생 1백2명에 2억2천7백34만8천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009년 1학기 장학금은 총 2백19명에게 5억3천2백11만2천원이 지급됐다.

이번 장학생 중에는 1978년 모교 경영학과와 1989년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李晋浩(경제학 박사과정·前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동문과 모교 종교학 학사·석사학위를 받은 具亨燦(종교학 박사과정) 동문이 포함됐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식사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정성을 베풀기 위해 함께 해주신 특지장학회 동문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작년 한 해 동안 모교로부터 들려온 반가운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는데, 이 자리를 빌려 동문 여러분과 모교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본회의 '중흥 비전과 도약 플랜'에 대해 설명했다.

林光洙회장은 "지난 2002년 총동창회장 취임 후 동문들의 숙원인 새 동창회관의 건립을 천명하고 2007년 마포에서 기공식을 가졌으며, 2010년 말 장학빌딩이 완공되면 동창회 재산 1천억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고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저금리시대를 맞아 금융이자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나 사회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본회 장학재단만은 장학빌딩의 안정적 임대수익금으로 안심하고 장학사업과 교수 지원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장학생들에게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나만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자기와의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을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기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실행하고, 앞으로 무엇이 돼야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한 발 앞서 최고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자기 계발을 게을리 하지 말고, 좋은 스승과 벗을 곁에 두어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장학금 전달

洪性大특지장학금 수여

明泰鉉특지장학금 수여

李海遠특지장학금 수여

郭永駜특지장학금 수여

미대동창회특지장학금 수여

모교 金信福부총장은 격려사에서 "서울대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대한민국 교육과 연구의 중심인 모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기울여 왔다"고 전하면서 "모교를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다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장학생 여러분의 선배 동문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열정했던 분들"이라며 "이 장학금은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해줄 것과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金都煥(의학3년)군은 장학생을 대표해 "오늘날 넘쳐나는 정보가 오히려 진정한 지식을 가리고 있다"며 "그러한 정보 속에서 우리 후배들은 사람과 사람, 학문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참 지식을 이끌어내는 혜안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상은 높게 머리는 낮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깊게 마음은 넓게 가지는 서울대인이 되겠다"고 답사했다.

이어 축가로 李昌遠(성악01-06)동문과 재학생인 金珠惠(성악06입)양이 金智勳(성악01-07)동문의 반주에 맞춰 듀엣으로 '꽃구름 속에서'를 불렀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尹勤煥·李海遠·金讚淑·郭永駜·鄭潤煥·孔大植·鄭八道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鉉·趙弼濟·申明珪이사, 朴鷰壽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또 모교 金信福부총장, 具英학생부처장, 南益鉉발전기금 상임이사를 비롯해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 보대원동창회 姜寅求회장, 신양문화재단 鄭晳圭이사장, 양지학원 金鍾祺이사장,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金綉雄고문, 가천의대 길병원 朴國洋기획부원장, 郭東憲변호사, 삼덕 朴浩田회장, 드림위즈 李燦振사장,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회 秋景玉여사, 양천장학회 金正煥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表〉

본회 일반장학생 명단

(괄호안 전공·학년)

▲**인문대** 具亨燦(종교학 박사과정)·成管淨(노문학4)·禹相吾(중문학3) ▲**사회대** 李晋浩(경제학 박사과정)·金東奎(경제학 석사과정)·孔새미(심리학4)·金다례(사회학4)·金鐘大(경제학3)·鄭賢娥(외교학3) ▲**자연대** 白東鉉(수리과학4)·盧政鉉(통계학3) ▲**간호대** 李姓洹(간호학2) ▲**경영대** 權福姞(경영학4) ▲**공대** 朴志訓(지구환경시스템4)·李奇旭(기계항공공학4)·李政勳(산업공학4)·李準埰(조선해양공학4)·河在承(컴퓨터공학4)·許丙湖(전기공학2) ▲**농생대** 郭旻皓(식물생산과학3)·柳恩知(농경제사회학3) ▲**미대** 宋芝珺(동양화4)·朱炯俊(동양화2) ▲**법대** 徐아리나(법학3)·李修貞(법학 석사과정) ▲**사대** 崔奇鎬(미술교육 박사과정)·金하나(교육학 석사과정)·全美善(특수교육 석사과정) ▲**생활대** 許智惠(의류학3) ▲**수의대** 楊知永(수의학1) ▲**약대** 崔 源(약학4) ▲**음대** 金새암(작곡4) ▲**의대** 金都煥(의학3)·卞相詠(의학3) ▲**치대** 鄭碩琦(치의학4)

각 단과대동창회 장학금 1백2명에 2억2천여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李倫京)=12명:9백만원 ▲법대동창회(회장 金正國)=18명:5천6백47만5천원 ▲사대동창회(회장 卞柱仙)=4명:1천1백27만8천원 ▲상대동창회(회장 洪龍燦)=40명:9천6백39만5천원 ▲생활대동창회(회장 鄭興淑)=2명:2백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角模)=5명:1천만원 ▲약대동창회(회장 李世榮)=5명:5백만원 ▲치대·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洪禮灼)=4명:1천2백만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河斗鳳)=4명:1천2백만원 ▲환대원동창회(회장 姜吉夫)=5명:5백만원 ▲SGS동창회(회장 李承漢)=3명:8백20만원

2009년 1학기 특지·기금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학회	설립자	수혜자	장학금
洪性大특지	洪性大(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관악회 상임이사	朴芝源(법학4년)	3,000,000
		裵하은(영문학4년)	3,000,000
		朴寶羅(경제학3년)	3,000,000
		朴潤雅(법학3년)	3,000,000
		宋소라(국어교육3년)	3,000,000
		高錫範(법학2년)	3,000,000
		趙康勛(수리과학2년)	3,000,000
		金正桓(사회과학1년)	3,000,000
		丁蕙仁(농생명공학1년)	3,000,000
金柱津특지	金柱津(법학54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회장	金所炯(외교학4년)	2,600,000
		金世英(언론정보학3년)	1,700,000
		金昭晶(경제학3년)	1,700,000
		高秀然(식품영양학3년)	3,200,000
		金多愛(식품영양학1년)	3,600,000
		金賢錫(재료공학1년)	2,000,000
		吳振泳(과학교육1년)	3,600,000
		車宜晋(간호학1년)	3,600,000
		崔鍾允(인문계열1년)	3,000,000
		許眞佑(지구환경1년)	2,000,000
李吉女특지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	金甫璟(과학교육1년)	3,348,000
		明修娟(식물생산1년)	3,348,000
吳東英·金讚淑특지	吳東英(조선항공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讚淑(치의학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金來潤(치의대학원4년)	3,000,000
		朴炫洙(치의대학원3년)	3,000,000
		金南佑(치의대학원2년)	3,000,000
		李珉雨(치의대학원1년)	3,000,000
楊銀淑특지	故 楊銀淑(간호51-54) 前대한간협 재정위원장	金芝彦(간호학3년)	2,000,000
鄭八道·李慈倖특지	鄭八道(AIP 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부인 李慈倖여사	金秀泫(경영학4년)	1,272,000
		李承南(법학3년)	2,537,000
李金玉·黃海根특지	黃海根(토목공학54-60) 동일기술공사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李受炫(법학2년)	2,611,000
李道卿·李燦振특지	李道卿(농학56-63) 부평문화재단 이사장 아들 李燦振(기계공학84-89) 드림위즈 사장	李在榮(기계항공2년)	1,000,000
		曺榮一(에너지자원2년)	1,000,000
李鍾基특지	李鍾基(경영69-73) 상영무역 사장	郭準成(경영학1년)	2,786,000
		金保錫(사회과학1년)	2,500,000
鄭晳圭특지	鄭晳圭(화학공학48-52)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姜成訓(건축학 석사)	2,000,000
		徐相敏(컴퓨터공학 석사)	2,000,000
		徐賢珉(컴퓨터공학 석사)	2,000,000
化學科특지	화학과동창회	朴成桓(화학4년)	2,821,000
金秉順·李志鎬특지	金秉順(AMP 4기) 한국구아노 이사 아들 李志鎬(의학77-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李鍾赫(법학4년)	1,000,000
		徐尙泳(법학4년)	1,000,000
		姜 昊(의학2년)	1,000,000
		池忠根(의학2년)	2,000,000
鄭大永·閔婉基특지	鄭大永(경제51-55) 前한주통산 고문 부인 閔婉基여사	林志碩(경제학3년)	2,537,000
孫致武특지	故 孫致武(대학원70졸) 前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金叡璘(지구환경4년)	1,500,000
		李柱弦(지구환경4년)	1,500,000
林光특지	林光洙(기계공학48-52) 임광토건 회장	李東奎(경제학4년)	1,500,000
		徐治源(경제학3년)	1,500,000
		李相賢(사회학2년)	1,500,000
安聖哲·孫潤淑특지	安聖哲(행정58-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孫潤淑여사	李振赫(법학4년)	2,379,000
郭永駜특지	郭永駜(토목공학56-60)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	禹文柱(수학교육1년)	2,788,000
李海遠특지	李海遠(행정51-55) 한국우드워드 회장	禹成濟(법학1년)	1,800,000
明泰鉉특지	明泰鉉(기계공학46-50) 前송원기업 대표	尹康植(기계항공3년)	3,113,000
牧村5父子특지	故 金道昶(법학43-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金基浩(법학4년)	2,009,000
		南承廷(법학3년)	2,537,000
		尹富源(경영학3년)	2,167,000
李元珪특지	李元珪(농생물58-63) 한산이씨 도봉구 화수회장	李在善(국사학4년)	1,000,000
郭東憲특지	郭東憲(법학61-65) 변호사	鄭智鏞(산림과학4년)	2,889,000
李相範·高姙錫특지	李相範(행정53-57) 변호사 부인 高姙錫여사	孫炯璂(응용생물3년)	2,500,000
保大院특지	보건대학원동창회	金世潤(환경보건학 석사)	2,000,000
數學科특지	수학과동창회	金定澈(수리과학4년)	1,000,000
		羅裕敞(수리과학4년)	1,000,000
		鄭柄浩(수리과학4년)	1,000,000
禹仁性특지	禹仁性(기계공학58-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金鉉宇(기계항공1년)	2,627,000

경제불황 속에서도 장학금 풍성

장학빌딩 건립기금 裵命仁동문 등 줄이어

지난 2월 28일까지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裵命仁(법학52-56 본회 부회장)명예대표변호사가 1천만원, 서정법무법인 朴萬浩(행정57-62)고문변호사가 1천30만원, 녹색극장 千男重(자원공학65-69)대표가 1천1백50만원을 출연했다.

장학빌딩 건립 후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가 설립되며, 본회 장학금 수여식 때 기금을 출연한 동문이 직접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상과대학동창회

1억1천만원 전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澯)는 지난 2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2009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및 최우수 졸업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강재단 장학생(5명)을 포함해 경영학과 및 경제학부 재학생 40명에게 총 9천6백39만5천원을 전달했다. 또 최우수 졸업자로 경영학과 이민지(학점 4.23)·김지현(4.10)동문, 경제학부 이정현(4.08)·이문성(4.07)동문을 선정해 상패와 선물을 전달했다. 그밖에 대학원 학술연구비로 경영전문대학원과 경제학부 대학원에 각각 1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날 특지장학금을 출연한 경제학부 鄭雲燦(경제66-70)교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장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출연해 주신 선배들에게 자필로 감사편지를 꼭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鄭교수는 학부시절 4년 동안 상대동창회 장학금을 받은 바 있다.

법과대학동창회

재학생 18명 지원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正國)는 지난 2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2009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7명과 학부생 11명에게 총 5천6백47만5천원을 전달했다.

서울법대장학재단 李相赫(행정54-58)이사장은 "지난 64년부터 총 5백89명의 동문들이 30억1천여 만원을 출연해 지금까지 3천5백39명에게 18억5천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金正國회장, 黃義萬감사를 비롯해 장학금을 출연한 李壽榮(법학56-60)·宋基方(행정59-63)·朴榮姬(행정61-65)·韓杜鉉(법학76-80)동문 등이 참석했다.

장학회	설립자	수혜자	장학금
金潤澤특지	金潤澤(경대원68-70) 양천장학회 이사장	李鍾永(지구환경 석사)	1,500,000
		李承潤(경제학3년)	1,500,000
姜信浩특지	姜信浩(의학46-52) 동아제약 회장	朴志原(제약학4년)	3,139,000
吳應鉉·秋景玉특지	故 吳應鉉(섬유공학67-71) 前반월나염시범단지 대표 부인 秋景玉여사	金東河(재료공학2년)	3,205,000
그린특지	농대 그린장학회	孫旼志(식물생산3년)	1,000,000
金相廈특지	金相廈(정치45-49) 삼양사 회장	文致皓(산업조선 석사)	3,887,000
		張그린(식물생산 석사)	2,000,000
		禹雅美(교육학4년)	2,324,000
嚴秉潤특지	嚴秉潤(외교60-64) 세림테크 회장	鄭한결(인류·지리1년)	2,780,000
李金器특지	李金器(약학55-59) 일동제약 회장	任慧仁(제약학2년)	3,000,000
朴冠鎬·申明珪특지	故 朴冠鎬(화학교육47-51) 前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申明珪(생물교육48-54) 관악회 이사	申宙永(의류학 박사)	4,030,000
		趙庸中(자유전공1년)	3,174,000
美大특지	미술대학동창회	李相協(디자인학2년)	4,000,000
鄭潤煥특지	鄭潤煥(임학56-62) 일성화학 사장	趙章桓(산림과학4년)	2,000,000
		宣惠和(산림과학3년)	2,000,000
劉常夫특지	劉常夫(토목공학60-64) 포스코 고문	車유진(경제학3년)	2,537,000
鄭啓泳특지	鄭啓泳(상학61-66) 원일전선판매 회장	郭東勳(경영학4년)	2,379,000
		宋在薰(경영학3년)	2,537,000

전북지부동창회

신입생 5명에 수여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2월 25일 전주시내 중식당 백리향에서 洪性大(수학57-63 본회 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고문, 金聖吉(법학60-64)회장, 鄭甲柱(법학73-77)전주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배 동문들이 44명의 신입생에게 기념배지를 달아줬으며, 洪性大고문은 축사에서 "서울대에 입학함으로써 머리가 좋다는 것은 증명됐으나 그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꼭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1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金聖吉회장은 김민석·김세원·김혜진·이요섭·정성현 등 신입생 5명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재학생 5명에 지급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2월 25일 대전시내 만두레 식당에서 2009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吳회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조영호군과 신입생 이민주·정찬모군, 성유민·김경미양에게 각각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南〉

南時旭·安秉勳·李長茂·李炯均·李廷湜동문 부부·林光洙·孫一根·洪性大·劉載天동문

관악언론인회 5대 회장에 文昌克동문 선출

CBS 李廷湜사장 '언론인 대상' 수상

관악언론인회(회장 李炯均)는 지난 2월 23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전·현직 동문 언론인 1백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6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SBS 金亨珉(외교76-80)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李炯均회장은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 청소년기로 성큼 올라선 관악언론인회는 동창회와 모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총동창회 장학빌딩이 웅장한 자태를 뽐낼 수 있게 힘을 보태고, 모교가 세계 10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서울대 동문인 여러분께서 선두에 서서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명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 요지 참조〉

모교 李長茂총장은 격려사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효율적인 대학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인재양성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제6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은 기독교방송인 CBS 李廷湜(지구과학교육72-76)사장이 수상했으며, 상패와 함께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회 劉載天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인 CBS의 직원출신 첫 사장으로 지난 6년간 재임하면서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새 활로를 찾기 위해 2003년 인터넷 '노컷뉴스'를 출범시키고 2006년 무료종합일간지 '데일리 노컷뉴스'를 창간해 CBS의 성공적인 매체 다각화를 이뤄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李炯均회장이 李廷湜동문(右)에게 상패 수여

李廷湜동문은 수상 소감에서 "진실이 우선하는 전제하에서 약자의 편에 서는 언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 소감 요지 참조〉

이어 가진 총회에서 앞으로 2년간 관악언론인회를 이끌어갈 제5대 회장에 중앙일보 文昌克(정치68-72 본보 논설위원)대기자를 선출했다. 감사에는 모교 언론정보학과 安國正(사학63-70)초빙교수와 한국언론재단 徐玉植(동양사학69-73)사업이사를 선임했으며, 또 그동안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임기를 마친 전임 李炯均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文昌克회장은 취임사에서 관악언론인회 탄생에 대해 "서울대 언론인은 집단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정권 내부에 퍼진 '서울대 위기론'을 그렇게 놔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모교와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모인 것"임을 강조했다. 〈취임 인사 요지 참조〉

安秉勳명예회장의 건배제의에 이어 열린 축하 공연에서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성악과 중창단이 멋진 화음으로 'Stein Song', '경복궁 타령' 등을 불렀다.

또 언론계 원로동문인 동아일보 崔禎鎬객원대기자는 덕담을 통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모든 선후배 언론인 동문"이라며 "언론인으로서 끝까지 눈치 보지 말고 기백을 가지고 살자"고 당부했다. 〈表〉

본회 林光洙회장 축사 〈요지〉

관악언론인회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발기인 모임부터 지금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李炯均회장님께 격려와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악언론인회를 이끌어 가실 차기 회장께서는 3천여 언론인 동문들을 단합시켜 서울대인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다하며, 총동창회와 함께 모교 발전에 앞장서는 관악언론인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문 언론인 여러분!

李長茂총장께서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곳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 데 대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총동창회도 장학빌딩 건립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각종 행사가 유례없는 성황을 이루는 등 모래알 같다는 동문사회가 서서히 단합하고 모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언론계 동문들께서 옆에서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계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언론인회의 탄생은 모교나 동창회로서는 참으로 잘한 일이 아니었나 새삼 생각되며, 이 모임의 탄생을 위해 애써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명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서울대 동문인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文昌克회장 취임 인사 〈요지〉

뜻밖에 관악언론인회를 맡아야겠다는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자리를 맡을 위인이 못된다는 점과 선배님들 중에서 먼저 맡으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모교와 선후배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대학과 여러 동창회가 있는데, 서울대 출신까지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되겠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관악언론인회 탄생은 서울대의 위기가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정권 초 서울대를 없애야 한국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괴상한 논리가 정권 내부에 퍼졌습니다. 실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놔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퍼져 언론계에서도 모교를 위해 무엇인가 힘을 보태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탄생부터 결코 집단 이기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였던 것은 이 나라에서 서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감이자 희생입니다.

서울대 출신은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언론인은 직업 특성상 모두 특종을 쫓아가는 1인 지상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6년이나 끌고 오신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런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접착제는 동문이라는 감성과 프로페셔널이라는 이성입니다. 따라서 동문의식과 직업의식 둘 다 우리에게는 모두 소중합니다.

제가 할 일은 동문의식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비록 다른 매체에 종사하더라도 바른 언론인의 길을 가도록 서로 북돋워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주 만나 서로를 격려하고 모교를 사랑하고 도웁시다.

李廷湜사장 수상 소감 〈요지〉

저는 CBS에 입사해서 올해로 만 30년이 됐습니다. 기자와 언론사 경영자의 입장을 모두 경험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로서의 지난 6년간 주위 환경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변화와 도전의 결단이 필요할 때 언제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 수입원인 방송광고공사의 매출은 해마다 줄어들었지만, 저희 회사는 수입원을 다변화해 전체 매출을 매년 신장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 흑자 기조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은 두 가지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내 언론사들은 IMF사태 때보다 더한 경영 한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험한 경영위기의 파고를 넘을 것인지가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긴박한 과제입니다.

또한, 언론계 내부의 갈등이 오래 계속되면서 언론사들이 자기 주장과 자사 이해관계의 최면에 빠져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는 일들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는 민주화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낭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사끼리 서로 확신범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언론사의 취향에 따라 제각기 해석합니다. 바야흐로 언론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언론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언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청자와 독자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간 마음에 잊지 않고 있는 언론 선배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은 약자의 편에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이 우선하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대·치대원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회장 재선임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洪禮杓)는 지난 2월 19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에서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池憲澤·金讚淑·白純之고문, 金鍾喆명예회장, 洪禮杓회장 등 1백여 동문이 참석해 자랑스러운 동문 수상자를 축하했다.

제8회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金逵澤(경성치전41졸)·朴永淑(치의학51-55)·故 韓性洙(치의학56졸)동문을 선정해 상패와 순금열쇠를 전달했다. 金逵澤동문은 동창회 10~11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공군병원과 경희대 치대 창설에 큰 기여를 하는 등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에 큰 업적을 쌓았다. 朴永淑동문은 사전치과의원을 운영하며 한국자수박물관 등을 개관해 한국의 규방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故 韓性洙동문은 미시건주립대 치의학 교수를 역임하고 해외 거주 동문과 동창회의 가교 역할 및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랑스러운 朴永淑동문과 洪禮杓회장

이어 지난 회기에 동창회를 위해 수고한 金鍾喆명예회장, 張鉉一(치의학71-75)·李英哲(치의학72-78)부회장, 李在一(치의학81-85)총무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타 대학 출신 구기태·서광석 교수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또 치의학대학원 1회(舊63회) 졸업생 94명을 대표해 유재욱군에게 회원패를 전달했다.

시상식 이후 진행된 총회에서 29대 회장으로 洪禮杓회장을 재선출했으며 崔光哲·南東錫·黃義康감사도 유임됐다.

洪회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모교 치의학연수원과 함께 정기 학술강좌를 계획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동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모교와의 유대감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락 가능한 4천여 회원 중에 1천3백명만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며 "모교 사랑은 회비 납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과대학동창회

崔正學동문 함춘기성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가 지난 2월 1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개최한 제26회 회원친선 바둑대회에서 崔正學(의학66-72)동문이 함춘기성 타이틀을 획득했다.

한국기원 高在熙(7단)사범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대회는 29명이 참가해 A조(1~2급), B조(3~4급), C조(5급 이하)로 나눠 진행됐다.

토너먼트로 승자를 가린 A조에서 崔正學동문이 兪 建(의학63-69)동문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B·C조는 金鳳植(의학65-71)·朱興在(의학57-61)동문이 각각 1위에 올랐다.

본 대회에 앞서 진행된 '바둑 퀴즈대회'에서 李夏吉(의학51-57)·李枝馥(의학52-58)·金潞經(의학58-64)·李炳洲(의학61-67)동문 등 8명이 퀴즈상을 받았다.

盧慶秀·朴台東·崔烈坤·李廷益·金東建·崔鍾元·姜淑子·崔炳善동문

ALP동창회

金勝濟회장 선출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동창회(회장 金亮沃)는 지난 2월 2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이스타코 金勝濟(4기)회장을 선출했다.

金勝濟회장은 취임사에서 "상부상조하는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애경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입 기수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 함께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金勝濟회장(右)이 金亮沃전임 회장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했다.

金회장은 ALP동창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학학원·은광여고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스타코는 교육 서비스업 및 부동산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제1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을 열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朴英洙(종교71-75·1기)대표변호사와 한국거래소 李正煥(3기)이사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또 모교 법대 成樂寅교수, 權寧祥(1기)·李瑗馥(1기)·최동철(1기)·金 研(2기)·崔炳德(법학72-76·3기)·安鍾萬(3기)동문에게 감사패를, 金京一(3기)·柳哲桓(법학79-83·3기)·김귀숙(4기)·張日碩(4기)·박노준(4기)·임대진(5기)·송춘영(5기)동문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李 姃 恩 作

〈작가약력〉

▲90~94년 모교 동양화과 졸업
▲95~97년 모교 대학원 졸업
▲99~07년 개인전 4회
▲새로운 형상과 정신전, 과천미협전
▲디딤 내딤전, 분분합합전
▲현재 예원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출강

'오래된 화병' 종이에 채색, 73×61cm, 2008.

ACAD동창회

회칙 개정안 의결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廷益)는 지난 2월 1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교례회 겸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廷益회장, 모교 행정대학원 崔鍾元원장을 비롯해 2백50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12월 임원회의에서 선임된 후 첫 행사를 개최한 李廷益회장은 "동문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그동안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참여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이날 행정대학원 내 사무실 설치, 직능별 부회장직 신설,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올해 골프대회, 조찬회, 홈커밍데이, 대상 시상식 등의 사업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편 이날 모교 행정대학원 吳然天(정치70-74)교수가 '한국경제의 경제선진화와 공공부문의 혁신'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불어교육과동창회

9월 창과 50주년 행사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趙弘來)는 지난 1월 10일 서울 선릉동 샹제리제 뷔페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모임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徐刑來(불어교육67-76·前청와대 정무비서관)동문을 추대했다. 이어 2009년 창과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각종 사업을 논의했다.

동창회는 오는 9월에 사은 행사를 겸해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또 교육계, 언론계, 관계, 기업 등에 진출해 활동하는 전국 각지의 동문들이 가능한 많이 참석토록 동문회 조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서는 창과 5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와 기념책자 편집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동문들의 사진이 수록된 주소록 발간,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월 두 차례 관악산 등반(2, 4주 토요일 오전 10시), 동호인 모임으로 테니스대회와 바둑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ACPMP동창회

43차 조찬세미나 열어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鍾洙)는 지난 2월 1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로즈룸에서 1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국토해양부 權度燁(토목공학72-76)제1차관이 초청돼 '2009년 건설산업정책 주요 추진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동창회는 매월 세미나를 개최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南〉

梁承龍·孫一根·李世榮·林光洙·李金器·金長淑·徐永鉅동문

약학대학동창회

총회서 공로패·장학금 수여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世榮)는 지난 2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 메이플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약대동창회 李金器명예회장, 모교 약학대학 徐永鉅학장, 식품의약품안전청 尹汝杓청장, 이화여대·성균관대를 비롯한 6개 대학 약대동창회장 등 1백2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에도 약학대학 동문들이 앞장서서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내는 등 국내외에 모교의 이름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교의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공로패 수여식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이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대우약품 池炫石(약학56-60)대표, 이화여대 金吉洙(약학60-65)명예교수, 일동제약 薛省和(약학63-67)사장, 광명메디컬약국 趙源益(제약69-73)대표, 林淑姬(약학71-75)동문에게 총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또 李世榮회장이 환인제약 尹承模(제약67-71)고문, 근화제약 裵相辰(약학70-78)사장, KSA인터내셔널 趙亮來(약학72-76)대표, 모교 약학과 金鎭雄(약학75-79)교수, 태평양제약 安源浚(약학80졸)상무, 광동제약 池榮洙(약학75-83)상무, 식품의약품안전청 徐京源(약학84-88)과장, 용인 팜메드약국 延濟德(제약84-88)대표에게 약학대학동창회장 표창상을 전달했다.

이어 올해 우수 졸업생인 전재창(제약05-09)·정세미(약학05-09)동문에게 축하 선물을 전달했으며, 모교 徐永鉅학장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했다.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약대 여동문회

鄭永淑회장 선출

약학대학 여동문회(회장 權善珠)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鄭永淑(약학69-73)동문을 선출했다.

마로니에회

張基浩동문 초청 모임

문리대 64학번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는 지난 1일 22일 서초동 기와집 순두부에서 2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신년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지난해 말 이라크 대사직을 마치고 돌아온 張基浩(외교64-68)동문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張동문은 "일년으로 예정돼 있던 근무가 8백일로 늘어났으나 사고없이 살아서 귀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柳熙根(사회사업64-68)동문의 서예 강의가 있었으며, 서울시 지명사전을 집필했던 李宇鎔(정치64-68)동문이 원구단과 덕수궁에 걸친 조선후기 유물을 둘러보는 서울 순례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화학과동창회

차기 金珞中회장 추대

화학과동창회(회장 嚴榮燮)는 지난 2월 5일 서울 역삼동 리더스클럽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양대 화학과 金珞中(화학69-73)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金珞中동문은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동문들의 인준을 받아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체육교육과동창회

鄭應根회장 선임

체육교육과동창회(회장 鄭淸喜)는 지난해 12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모교 체육교육과 鄭應根(체육교육63-67)교수를 선출했다. 동창회는 이날 총회에서 새 주소록을 배포했다. 〈문의 : 880-7803〉

생물교육과동창회

사업 활성화 논의

생물교육과동창회(회장 安泰仁)는 지난 1월 8일 서울 선릉동 샹제리제 뷔페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50여 동문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동창회는 교장·교감급 동문 모임 활성화, 입학·졸업 30주년 동기회 모교 초청 행사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간호대학동창회

3월 18일 정기총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李倫京)는 오는 3월 18일 오후 4시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40-8843〉 〈南〉

만평

李 元 馥

33년간 금융맨 외길 걸으며 자본시장 국제화에 앞장서

동문을 찾아서

黃 健 豪 한국금융투자협회 초대 회장

지난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새로 출범했다. 그 중심에는 한국증권업협회장을 역임하고 금융투자협회 초대 회장에 취임한 黃健豪(경영70-74)동문이 있다. 어려운 시기에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黃동문을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협회장실에서 만났다.

대 담 : 본보 朴聖姬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 증권업협회 회장이 되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을 주변의 절대적인 성원 속에 맡게 되셨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바탕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뒤져 있습니다. 때문에 전략적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 커다란 소명감을 갖고 있어요. 제 경우 대학 졸업 이후 지금까지 33년간 금융전문가의 외길을 걸으면서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요. 바로 이런 점에 많은 분들이 점수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말이 그렇지 서로 다른 세 단체를 통합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본시장법 자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고요.

"저는 오래 전부터 금융서비스산업을 IT 및 제조업과 접목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중요성 또한 역설했고요. 그런데도 지급결제 문제 등을 놓고 반대가 심했죠. 지급결제는 금융소비자시대에 있어 하나의 수단인데 아직도 전통적인 뱅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는 사람은 적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자본시장이라는 게 다양화됐는데 여전히 예전의 통화신용정책만 주장하는 건 문제죠.

사실 일본도 2년 전에 비슷한 법을 제정했어요,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죠.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보다 더 빨리 통과시켰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우리가 진일보했어요. 일본법에선 우리처럼 협회 3개를 통합시키지 못했고요. 우리가 성공하면 아시아 이머징마켓의 모델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는 거죠."

– 조직과 인력, 업무를 통합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진실이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해야죠. 사적인 목적으로 하면 대립이 생겨요. 저는 戰史를 많이 읽는데 우월한 지위에선 숫자가 아니라 전략과 조직력, 기동력으로 이기죠. 리더가 자기 이득을 먼저 생각하면 결코 이기지 못해요. 3개 협회 통합과정에서도 증권업협회가 양보했어요. 의결권도 그렇고 인원 감축도 많이 하고요."

– 친화력이 큰 힘으로 작용하는 듯한데 근간은 무엇인지요.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사교적이진 못해도 친화력이 강한 편이라고 해요. 친화력이란 게 사교적인 것과 달라요. 친화력은 여러 가지 내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진실이라든가 살아온 과정같은. 사교적인 건 좀더 외향적인 것이고요. 폭탄주는 13잔까지 마셔본 것 같은데 쓰러진 적은 없습니다. 담배는 안 해요. 가끔 시가는 피우는데 취미에 가깝죠. 소주는 2병 정도. 요즘엔 많이 줄였어요.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영향을 받으면 안되니까요."

– 뉴욕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코리아펀드 창설의 주역을 맡으셨죠.

"코리아펀드는 대우증권 재직 시 뉴욕시장에 진출해 설립했습니다. 우리 사회엔 항상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 금융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실패할 거라며 반대했지만 성공시켰습니다. 12달러에 발행했는데 나중에 1백달러를 넘었죠. 그 결과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자금을 조달할 때 벤치마크 대상이 됐고요. 미국에서 2백~3백%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삼성전자, 포스코,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주식들이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1992년 금융시장이 개방됐고 저는 현장에서 주역으로 뛰었죠.

수많은 국제적 딜 중에서도 한국통신(KT) 건은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GDR(Global Depositary Receipt)이라고 우리 주식을 달러화시켜 해외에 파는 건데, 1994년 당시 25억불짜리를 성사시켰습니다. 사실 지금은 국제금융이 예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은행의 경우 7~8년 전 만 해도 금융부실 때문에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끄떡 없습니다. 2005~2007년 금융버블시대, 금융완화시대 때 중국은행들이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자본을 끌어모은 덕이죠. 반면 우리는 국제금융이 국내로 많이 후퇴했어요."

코리아펀드 창설·금융시장 개방의 주역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투자자 보호해야"

– 그렇게 후퇴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997년 외환 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물론 부채비율 등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죠.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죽었어요. 기업금융을 잘못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경제발전단계에서 볼 때 아직까지 가계금융보단 기업금융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과거 국제금융을 했던 사람들의 뼈아픈 경험을 살리질 못하고 미국의 소비금융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 은행이 가계금융화됐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리스크는 사실 더 무섭잖아요. 카드채, 부동산금융 문제 등. 따라서 이번에 다시 그런 문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라도 기업금융을 강화시키려는 거고요."

– 증권회사를 선택한 동기가 따로 있으셨는지. 당시 추세와는 달랐던 듯한데.

"학창시절은 혼란기였죠. 노상 데모하고 휴강하고. 방향이 없어 방황했죠. 고시공부도 하다 때려치우고. 유학 갈까 생각도 했고. 공부가 안돼 전국일주도 했고요. 우리 때는 졸업하면 으레 무역회사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언젠가 증권시장을 견학했는데 그게 인상적이어서 관련서적도 읽으면서 내가 개척해 볼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했는데 잘 한 것 같아요. 증권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지금까지 늘 개척자였어요. 해외사례를 우리한테 어떻게 접목시켜 발전시킬지,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들지 등을 놓고 많이 고민했고 고생도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 자본시장법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CMA만 가입하려고 해도 투자성향을 분석한다며 설문조사를 하는 통에 귀찮고 시간도 많이 뺏긴다고들 합니다.

"안그래도 완화시키느라 노력하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규제혁신법입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만드는 등 금융회사들의 업무 범위를 종합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기업가정신이 시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유일한 규제 부분이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러나 이건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금융고객 신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첫째입니다. 윤리의 문제죠. 장사만 된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가 선언적으로 강화됐어요. 세계적인 추세도 투자자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의 최대한 보장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작년에 수익증권을 팔면서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죠. 자본시장법에선 투자자 보호 추세에 맞춰 금융회사가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금융회사가 다시 하도록 한 것이죠. 굉장히 진일보한 조치예요. 그렇게 해야 금융회사도 보호받거든요. 금융소비자 주권시대에 무조건 팔다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요. 자본시장법에선 투자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설명의무가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일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다양한 파생상품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상품인지 설명하지 못했는데 일일이 설명하도록 하니 불편한 게 있겠죠. 은행이 자본시장, 장기간접펀드 투자에 상당히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불완전 판매가 많이 발생됐으니 이번에 한 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겁니다. 주식형펀드가 1백40조 규모의 굉장히 고도화된 자본시장인데, 발전하려면 투자 신뢰부터 이뤄져야죠.

CMA는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권에서 권유와 설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설명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권유받지 않겠다고 하면 안해도 돼요. 파생상품만 하면 돼요. 나머지 상품은 창구에서 설명을 권유받지 않겠다고 체크하면 등급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권유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 실제로 설명이라는 게 곧 권유로 연결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

"자본시장법·기업금융 강화로 아시아 이머징마켓 모델되겠다"

대학 4년동안 60회 이상 등산 여행 다녀

"여력 있으면 공공기관서 봉사하고파"

"법엔 원칙이 있지만 내부통제가 잘 안되니 이게 제대로 돼야 해요. 시행하라고 했는데 전부 법에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해석상의 문제를 정리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의 원리가 뭐냐, 왜 필요하냐고들 하는데 제대로 안하면 큰 일납니다. 때문에 금융투자교육원을 확대 개편하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전문인을 국제화시키고, 금융투자연구원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금융교육까지 확대할 작정입니다. 증권사는 새로운 역량을 키워 새로운 곳에 진출을 해야죠. 은행과 자본시장이 금융의 두 축인데 자본시장이 잘 발전해야 은행도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은행장들께도 이렇게 말해요. '은행은 리스크를 集積하고, 자본시장은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자본시장이 리스크를 분산시키니까 상호 발전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후기 정보화사회까지 올 수 있었던 동력은 곧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요.

"지도자는 좀더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원화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녔으면 하는 것이죠. 서울대생이면 모두 지도자를 꿈꾸는데 통찰력과 관심분야 등에 대해서도 좀더 다원화되도록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또한 품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품격은 자기가 정한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에 따라 제 길을 갈 때 나타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선 뭐 하나 좋다고 하면 전부 좇아가잖아요. 우리도 세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와 있는데 자꾸만 주관 없이 휩쓸리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는 누구나 글로벌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시를 좋아합니다. 대학 땐 프랭크 시나트라를 흠모하기도 했어요. 'LIFE'지였던가, 프랭크 시나트라가 고별쇼를 하면서 '마이웨이'를 부르고 끝으로 담배를 한 대 멋있게 피우는 모습이 실린 기사를 보고 반했었죠. 각자 좀 멋있게 자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는 언제쯤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전 세계가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공황 때는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리얼타임으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사실 이번 위기의 근저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행태와 이라크전, 금융 버블, 지속적인 쌍둥이 적자, 개인들의 탐욕, 투자공학의 발달로 인한 파생상품의 무수한 출현 등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1929년과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종합감기약을 먹여야 되는 상태인데 초기 대응이 잘 안돼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부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은 하반기부터 선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봐서는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이번 위기에 잘 대응하면 회복기에 우리 기업들의 회복력은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국제금융 체계가 개편될 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며칠 뒤 호주에 가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모두 금융위기 이후에 대비하자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해외에선 재작년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고 전망됐는데 우리나라에선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궁색해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핵가족화에 따라 가구 수가 늘어날 것이다' 등등이죠. 하지만 핵가족화된다고 40~50평 짜리 아파트를 삽니까? 비논리적이에요.

현재 전 세계 자산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호주 등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올라간 나라죠. 우리나라만 부동산 버블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소득수준이 올라 좀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대체수요는 조금 있겠죠. 그러나 지난 몇 년동안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았어요. 그럼 뭐로 집값이 올랐느냐. 금융완화 정책에 의해서죠. 은행이 소비금융 위주로 간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장기적인 경제 예측은 항상 펀더멘탈 중심으로 해야 돼요."

– 개인적인 재테크 성적을 공개한다면.

"부동산테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쓸 오피스텔도 하나 있고 금융재산도 장기투자를 해오고 있어 큰 손해 안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동산, 현금자산, 유가증권을 3:3:3 정도로 보유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주변에서 자꾸 나이 들면 단독주택에서 못사니 아파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솔깃해지긴 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 집이니 강남의 유명 아파트와 안 바꾼다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죠. OECD국가 대부분이 30~40%예요. 여기에 대해선 국가지도자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의 위기는 클린턴 대통령 때 벌인 주택 갖기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까요. 취미를 말씀해주시죠.

"제가 사실 여행광입니다. 요즘은 바빠서 잘 못 가지만요. 대학 시절 졸업할 때까지 등산 여행만 60회 이상 했어요. 영리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제 길을 갔는데 저는 4년간 온갖 시도를 하다 졸업했어요. 음악감상도 좋아했고요. 졸업식날에도 취직은 했지만 미래를 생각하니 착잡해서 음악감상실에 들렀죠. 을지로에 아폴로이던가, 조용히 앉아 음악만 듣는 곳이었죠. 그리고 저는 정원가꾸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작은 화단에 이것저것 심고 기르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대학 때 아버님이 꽃에 물을 주시면서 저 보고 재미있지 않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뭐가 재미있나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장단기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오랫동안 민간부문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전문가로 성장한 사람들은 노후 관리를 할 정도가 되면 공공기관에서 봉사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기회가 되면 민간부문에서 쌓은 경험을 공공부문에 마음껏 쏟아붓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대가를 받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대가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회는 완전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적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이곳에서 세계적인 협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소진해 버리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언젠가 공공기관에서 봉사해봤으면 합니다."

– 미네르바 소동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려울 때 얘기해줄 사람이 없으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거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품격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 아닙니까. 말로는 세계화, 세계화 하면서도 툭하면 말초적 정보에 신경쓰는 데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잘못하면 그런데. (웃음)"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부모님 두 분 모두 교편을 잡으셨어요. 아버님은 고등학교, 어머님은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 근무하셨죠. 연애결혼을 하셨다네요. 저는 1남4녀의 둘째입니다. 집사람은 대학 1학년 때 USI(주한미국공보원) 영어회화클럽에서 만났고요. 아들이 둘인데 집안 내력인지 큰 아들도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소개받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유학 가서 딸을 낳았고요."

– 다독으로 유명하신데 근래에 읽은 책을 소개해주시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읽어요. 어제 밤엔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경제자문역을 지낸 자크 아탈리의 '위기 그리고 그 이후'를 읽었어요. 최근에 샌디 웨일의 '리얼 딜'과 헤르만 헤세의 '정원 일의 즐거움' 등도 보고 있어요."

– 총동창회에서 서울 마포의 옛 동창회관 자리에 새로 장학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또 모교 개교 원년을 찾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광복 이후 개교한 것으로 돼 있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학교 역사가 너무 짧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죠.

"동창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조금밖에 못 냈어요. 좀 더 내야겠죠. 더 낼까요?(웃음) 사실 저는 서울대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시시하게 굴지 않는다, 남보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같은 자부심을 길러준 것도 서울대고요. 뿐인가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요.

역사 찾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협회는 이번에 새로 출범했지만 제가 회장을 맡고 있던 한국증권업협회는 55주년이었어요. 55주년을 보내면서 제가 그간의 역사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어요. 역사와 뿌리를 갖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강남보다 인사동 일대를 좋아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좋다고 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겠죠. 저는 제 아버님이 43년에 졸업하신 경성사범학교도 우리 서울대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李五峰논설위원·정리= 表智媛기자〉

화제의 동문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黃迪仁편찬위원장

정의 수호에 앞장선 학생들의 생생한 기록

1969년 7월 동숭동 법학과 학과장 사무실. 데모 주동자 처벌에 대한 교수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중앙정보부로부터 朴鳳圭(행정67-74)군을 제명하라는 조치가 내려왔어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들 얼굴엔 근심만 가득할 뿐 말이 없었다. 그 질문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학과장은 물론 모든 교수들도 알고 있었다. 처벌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지만 오랜 침묵을 깨고 黃迪仁(법학52-57 모교 명예교수)교수가 일어났다. "朴鳳圭학생은 시골에서 올라와 어렵게 사는 학생으로 제명을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봅니다." 학과장은 버럭 화를 냈다. "학생회장인 그 학생을 제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합니까." 강압적인 태도에 기가 눌려 黃迪仁교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데모가 빈번하던 시절 교수회의 풍경은 늘 그랬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까지 내던진 학생들을 보며 黃교수는 가슴속 깊이 큰 짐을 안고 있는 듯 했다. 교육공무원의 신분이라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교수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때부터 학생운동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당시 고려대 金成植교수가 쓴 '독일 학생운동사'도 자극이 됐다. 일간 신문부터 외신, 지하신문(자유의 종)까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았다. 그 자료가 아직도 경기도 과천 서고에 가득히 쌓여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학생운동사를 집필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핑계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바빠 그 일을 시작도 못했어요. 마음속에 큰 짐이었죠."

그렇게 잊혀져갈 무렵 지난해 초 李信範(공법67-88)前국회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대 학생운동사를 집필하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편찬위원장을 맡아 줄 수 있으신지요." 어찌 마다할 수 있을까. 흔쾌히 허락을 했다.

"너무 고마웠어요. 쉬운 일이 아닐텐데, 마음속의 짐을 제자가 풀어주는구나 싶더라고요. 李信範군이 60~70년대 당시 학생운동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운동사 집필의 적임자였죠."

모아두었던 자료를 李信範동문에게 넘겨주고, 책 발간을 위한 비용도 조금 지원했다. 李동문이 대표로 집필하고 林鍾律(법학62-67 前성균관대 교수)·安平洙(법학68-77 LIBO종합건설 회장)·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동문이 공동집필자로 수고해 지난해 말 4백3쪽 분량의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정의의 함성 1964~1979'이란 제목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개별 대학 차원에서 고려대가 지난 2005년 학생운동사를 출판한 적이 있으며 모교 법대가 두 번째다.

李信範동문이 대표 집필

잠깐 책을 들여다보자. 이 책에는 60~70년대 학생운동의 중심에 섰던 법대 학생들의 치열한 항쟁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1964년 '한일굴욕외교' 반대투쟁에서부터 1966년 재벌밀수 성토, 1967년 6·8부정선거 규탄, 1969년 3선 개헌반대, 1970년 지하 저항신문인 '자유의 종' 발간, 全泰壹의 분신과 추도운동, 1971년 민주수호 운동과 위수령에 이은 대탄압, 1979년 유신철폐투쟁 등 민주화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제적을 당하며 정의를 위해 몸을 바쳤던 법대생 1백60명의 활약이 눈부시다.

특히 당시 보도되지 않았던 사진자료들(동아일보사 제공), 선언문 등 3백여 쪽의 자료들과 지하신문으로 공격을 받았던 '자유의 종', 서울대생 내란 음모사건의 조작 경위와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 등을 그대로 싣고 중앙정보부의 탄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건 현재 정계를 주름잡는 인사들의 학창시절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 李永熙(행정61-69)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姜萬洙(법학65-69)위원장, 安商守(법학64-68)·李仁濟(행정68-72)·崔圭成(법학68-72)·吳濟世(행정68-72)·李柱榮(법학70-74)·鄭鎭燮(법학72-84)국회의원 등의 당시 활약상을 담았다.

그러나 운동권 학생들이 모두 잘 된 것은 아니다. 黃迪仁위원장은 "제적까지 당했던 1백60명 중 많은 동문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다.

"金正煥(행정67-71)군은 시내버스운전기사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간경화로 83년 2월 사망했고, 李範泳(공법89졸)군은 도피생활 끝에 역시 간경화와 췌장암으로 94년 세상을 떠났어요. 그밖에 많은 제자들이 변두리를 돌며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학생 시절엔 직접적 피해자로, 사회에 나와서는 간접적 피해자로 살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비롯해 기본권이 존중되는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이들의 희생으로 이뤄졌다.

黃迪仁위원장은 "헌정을 수호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는 투쟁에서 서울법대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희생이 컸음에도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이제 국민, 특히 법학도들에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결의로 싸운 선배들의 헌신을 알리는 자료집이 나오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4월 중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념회에는 책 속의 주인공은 물론 타 단과대학 운동권 동문들, 재학생들을 모두 초청할 생각이다.

"4월 출판기념회 예정"

"이날 제적당했던 제자들에게 회고록을 부탁할 생각이에요. 지금 책 내용에 1백60명의 회고록이 더해지면 책이 한층 풍성해질 거라 믿어요. 또 문리대 등 타 단과대학에 자극이 돼 서울대 전체차원의 운동사가 편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黃迪仁편찬위원장은 독일 쾰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68년 모교에 부임해 당시 법대 학생운동의 주도 세력이었던 농촌법학회 지도교수를 맡았다. 현재 농업법학회 회장, 한국문예저작권협회 명예회장을 맡아 어려운 농민과 가난한 예술가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독일어에 능통해 최근에는 한국법을 독일어로 소개하는 논문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가족으로 閔淑姬(영어교육53-57)동문과의 사이에 세 딸을 두고 있다. 큰딸 모교 분당병원 신경안과 黃淨玟(의학79-85)교수, 큰사위 삼성의료원 안과 奇昌垣(의학83졸)교수, 둘째 사위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崔暻曉(의학85-89)교수 등이 동문이다. 〈南〉

동문기업 탐방

(주)에즈메드

(주)에즈메드(대표 林志俊 치의학92-97)는 지난 2007년 세계 최고의 헬스케어 그룹을 목표로 설립된 경영지주회사로,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그룹인 '제니튼', 치과기자재 유통을 위한 'DDS MAKE', 치과와 피부미용을 결합한 '美Face'(3월 론칭 예정)를 운영하고 있다.

에즈메드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모교 의대·약대와도 제휴해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병원들,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소비 감축으로 위축돼 있는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됐다.

기존 치과학계의 네트워크 형성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파한 林대표는 "뜻을 같이 하는 동문들이 모이면 학술과 진료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변화가 필요한 의료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에즈메드는 서울대 치과의사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닌, 학술대회, 피부미용, 의료관광 등을 통해 치과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고, 세계최고의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치과 네트워크

자회사 중 제니튼은 지난 1월 10일 5백여 명의 모교 치과대학 출신 동문들이 창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니튼은 '치과', '치기공', '메디컬' '약국' 등의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치과의원의 경우 국내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병원, 치기공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를 구성해 국민 구강 및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연구와 사회 소외계층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된다. 제니튼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니튼 학술대회는 단순히 기자재를 파는 등 흥행과 상업적인 목적이 강한 기존의 학술대회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재료를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치과의사들이 직접 모여서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상호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첫 학술대회에서는 치과기자재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즈메드 내의 자회사인 'DDS MAKE'도 최종소비자인 치과의사가 직접 만드는 치과기자재, 구매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소비와 유통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매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인구 증가와 환자의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경비를 줄이고 매출을 확대하는 경영 시스템의 도입과 의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혼자서는 하기 힘들죠."

林대표는 현재 사랑나누기 치과의사모임 총무, 스마일재단 사업본부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林志俊대표

지난 1월 10일 에즈메드 자회사인 제니튼 창립식

세계 최고 헬스케어그룹 꿈꾸는 기업

의료위기 극복 위해 뭉쳐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목표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를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죠."

사회공헌이나 나누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즐겁다는 林대표는 함께 기업을 꾸려나가는 치과대학 동문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문들도 뭉쳐야 산다는 말을 전했다.

"'서울대는 모이는 건 잘 못해. 개인적으로는 잘해도 모이지는 않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 동문들이 모교와 사회로부터 혜택을 나누고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榮〉

KYK(주) 김영貴환원水

물은 인간과 모든 생명의 건강이 유지되고 장수의 길을 걷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환경공해로 인한 수질 저하와 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지식 부족 등으로 물의 활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물과학 연구를 28년간 정진해온 KYK(주) 김영貴환원水(이하 KYK)의 金榮貴(GLP 13기·SPARC 10기)대표가 있다.

KYK는 물을 단순히 걸러먹는 정수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입증된 알칼리 환원수기(이온수기)를 연구개발·제조·판매하는 전문회사다. 현재 김영貴 알칼리환원水기는 위장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허가받은 국가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

KYK제품의 물은 한 종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칼리수(4단계), 정수, 산성수(4단계) 등 3종류의 9단계 물을 생성한다. 특히 입자(클러스터)가 조밀하기 때문에 물맛이 부드럽고 뒷맛도 개운하다. 무엇보다 활성수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질병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클립을 넣어둬도 녹슬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항산화·의학적 효능 입증

金榮貴대표가 물 전도사로 평생을 살게 된 계기를 물어봤다. "옛날 어른들께서 인간의 설움 중에서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크다고 해 '이 배고픈 설움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자연의학을 하게 됐는데 자연의학의 요법들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돼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물의 다양한 효능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죠."

현재 건강문화교육센터 원장, 중국청도이공대 경영학부 석좌교수를 겸하고 있는 金榮貴대표는 지난해 11월 세계적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독일 뉘른베르그 국제발명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2개와 특별상을, 그리고 국내 업계에서 유일하게 알칼리 이온수부문 '대한민국 대표상품 대상'(한국상품학회)을 수상했다. 이는 일찍이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류건강을 위한 일념으로 물과학 연구에 올인해온 결과였다.

물과학 연구에 28년 올인

金榮貴대표는 "품질은 제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지식과 신용, 인격에도 품질이 있다"고 말한다. KYK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품질을 판매하고, 그 아름다운 품질을 통해서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만든다는 생각이 남들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교육에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직원들에게 하드트레이닝을 시키고 전 직원에게 술과 담배를 끊을 것을 권유한다"며 "'고객은 神 이상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고객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당부하고, '신과의 약속은 어길지라도 인간과의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을 끊임없이 인식시킨다"고.

KYK는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천연 피톤치드가 나오는 산림욕기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아이템을 출시할 예정이다.

金榮貴대표는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찰과 범죄, 병원이 없어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리고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건강장수촌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이 사업을 단순 돈벌이로 생각한 적이 없다"며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앞으로도 그 신념을 잃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表〉

金榮貴대표

알칼리 환원수기(이온수기) 제품

국내 최고 알칼리 환원수기 생산업체

제63회 학위수여식

학사·석사·박사 총 5천81명 배출

李長茂총장 "포용과 소통으로 지혜 키우길"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3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海遠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權彛赫·李賢宰·趙完圭·鮮于仲皓·李基俊·鄭雲燦전임 총장과 李長茂총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金明煥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5백8명, 석사 1천6백67명, 학사 2천9백6명 등 총 5천8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李長茂총장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은 고정불변의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지향하는 살아있는 지식"이라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실천적 지혜를 터득해야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과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늘 자중자애하고 포용과 소통을 통해 공동선을 발견하는 덕성과 지혜를 부단히 키워 나갈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겸허히 자신의 소양과 인격을 도야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로 세상을 헤쳐 나아간다면 미래는 반드시 여러분 편일 것"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졸업생들에게 "여러분이 교문을 나서자마자 당장 만나게 되는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대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지난 60년간 수많은 위기에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이뤄낸 희망의 나라"라고 말했다.

또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인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천하의 준재인 졸업생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뒤를 이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낼 엘리트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어 음대 朴賢宰(성악86-90) 교수가 玄濟明 작사·작곡의 '희망의 나라로' 축가를 선사했으며, 졸업생을 대표해 경영학과 李旼知양이 인사를 했다.

인문대학 언어학과 강소혜 양 등 16명이 각 단과대학 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졸업생은 학사 27명, 석사 80명, 박사 25명 등 총 1백32명이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입학한 지 63년만에 졸업하는 최고령 李漢九(82세)동문과 몽골인 내과의사, 치매예방 신약개발에 참가한 중국인 등 외국인과 이색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써 눈길을 끌었다.

"죽기 전에 졸업장을 받게 돼 여한이 없다"고 소감을 밝힌 李漢九동문은 영어교육과에서 2학년을 수료한 뒤 독어독문학과에 편입해 학업을 이어가던 중 4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李동문은 지난해 6월 재입학해 졸업논문 '카프카의 생애와 문학'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독도는 우리 땅'을 세계에 홍보한 경제학부 金榮彬군과 '공부의 神'으로 각종 언론에서 활동하며 청소년을 지도해온 기계항공공학부 姜聲泰군도 졸업장을 받았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강소혜 - 배상규 ▲사회대 : 변혜원 - 민경남 ▲자연대 : 김형원 - 황의종 ▲간호대 : 박다정 - 윤혜정 ▲경영대 : 이민지 - 김영환 ▲공대 : 강종헌 - 이헌욱 ▲농생대 : 김민식 - 방예지 ▲미대 : 김성국 - 한지영 ▲법대 : 정한별 - 김인중 ▲사대 : 장윤실 - 김신원 ▲생활대 : 정수지 - 박소연 ▲수의대 : 안지예 - 김두현 ▲약대 : 김혜림 - 문지현 ▲음대 : 노예진 - 박소영 ▲의대 : 윤소영 - 장시혁 ▲치대 : 김도근 - 김예은

"동창회 입회 축하합니다"

2008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천9백6명, 석사 1천6백67명, 박사 5백8명 등 총 5천8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동창회 총 회원 수는 33만5천6백87명(준회원, 특별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 수와 동창회 회원 수는 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2월 졸업	총회원
인문대학	211	10,733
사회과학대학	342	14,075
자연과학대학	224	10,581
간호대학	64	3,418
경영대학	142	6,668
공과대학	646	42,030
농업생명대학	233	20,538
문리과대학	-	9,731
미술대학	102	5,166
법과대학	167	16,000
사범대학	239	25,548
상과대학	-	6,723
생활과학대학	81	3,993
수의과대학	69	2,236
약학대학	84	6,121
음악대학	106	7,384
의과대학	184	11,207
치과대학	12	6,047
대학원	1,846	84,797
치의학대학원	82	82
경영전문대학원	44	145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국제대학원	41	419
보건대학원	47	3,201
사법대학원	-	508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68	4,313
환경대학원	47	2,438
소계	5,081	305,720
준회원	-	13,338
(특별과정)	515	16,629
총계	5,596	335,687

李長茂총장 졸업식사 〈요지〉

오늘은 여러분이 미지의 세계로 비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대학 밖의 세계는 넓고도 변화무쌍합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은 고정불변의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지향하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새로 창출되는 지식들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고, 그 전파된 지식들은 다른 지식들과 소통해 더욱 가치 있는 지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여러분은 창의적 탐구에 부단히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보낸 수학 기간은 여러분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졸업과 함께 새로운 삶과 배움의 장이 열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실천적 지혜를 터득해야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과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 시야와 긴 호흡으로, 우리사회와 세계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층 더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졸업식이 바로 이러한 각오를 새로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리더가 되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학력이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없이 낮은 곳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한 사회, '동반자 사회'는 탁월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력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한편,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동반자, 겸허한 조력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자중자애하고 포용과 소통을 통해 공동선을 발견하는 덕성과 지혜를 부단히 키워나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못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정치 사회적 여건도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졸업생 여러분을 떠나보내게 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겨울도 새로 다가오는 봄을 막지 못하는 법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거나 학교의 품을 떠나 사회로 진출하거나, 우리 모두에게 미래는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의외로 많은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 속에 인생의 보람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늘 겸허히 자신의 소양과 인격을 도야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로 세상을 헤쳐 나아간다면 미래는 반드시 여러분 편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어서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대학원장에 朴鍾和교수 선임

지난 2월 21일 환경대학원장에 朴鍾和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朴원장은 1967년 모교 임학과에 입학, 1974년 졸업한 후 1976년 모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85년 美뉴욕주립대에서 환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현재 환경조경학회 이사, 한국GIS학회 이사, 환경부 환경정보화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榮〉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이제 여러분이 교문을 나서자마자 당장 만나게 되는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는 IMF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으며,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실업 대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전자, 조선, 제철, 자동차산업 등을 보유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며 지난 60년간 수많은 위기에도 불굴의 투지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이뤄낸 희망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미래는 예측불허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동시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헤쳐 나가면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나의 손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목표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열정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에도 그 나라를 이끌 엘리트 집단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선배 서울대인의 헌신적 봉사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천하의 준재인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뒤를 이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낼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변화를 상상했으며, 마음에 그 꿈을 그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후배 동문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서울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재학시절 모교에 대해 못다한 애정을 이제 동창회를 통해 마음껏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모교인 서울대는 영원히 여러분 삶의 일부이며, 여러분의 선배와 동기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가는 책임도 함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서울대인은 이웃을 돌보고 배려하는 선량한 마음을 지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서, 대의를 위해 언제든지 자신을 희생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교가 세계 명문대학에 오르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열정과 의지를 한 데 모읍시다.

발전위원회 신년조찬회

모금캠페인 발전 방향 논의

모교 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孫京植·尹鍾龍)는 지난 2월 17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 미팅룸에서 신년조찬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발전위원회 명예위원장인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孫一根·洪性大·金鎭炫고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모교의 발전된 모습과 'Vision 2025' 모금캠페인 현황 보고를 듣고 모교의 세계 초일류 대학을 향한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모교가 李長茂총장님을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굳은 결의와 노력으로 눈에 띄는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2천억원에 이르는 발전기금 모금이 가능했으며, 이 자리가 모교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교는 지난해 국제화 사업 추진 및 국제적 위상 강화, 학문간 융합 등을 통해 세계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올해는 법인화 방안 마련, 멀티캠퍼스 및 사회동반자 프로그램 추진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南益鉉발전기금 상임이사는 "개인기부자들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등 모금목표 달성과 함께 기부문화 확산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李長茂총장은 폐회사에서 "이제는 국내 대학들과의 경쟁을 떠나 대학과 국가 모두 합심해 세계 대학들과 경쟁할 때"라며 "사회를 품고 함께 가는 모교가 될 수 있도록 발전위원들께서 앞장서서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교 병원 발전후원회 후원인 초청 '감사의 밤'

모교 병원 발전후원회(회장 姜信浩)는 지난 2월 26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姜信浩회장을 비롯해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金信福부총장, 모교 병원 吳秉熙진료부원장, 의과대학 任廷基학장, 신양문화재단 鄭晳圭이사장 등 2백여 명의 후원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장 및 후원회장 인사, 홍보동영상 상영, 만찬 및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姜信浩회장은 "후원금은 병원의 각종 사업과 난치성질환 연구비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교직원, 회원, 동문 등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병원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林光洙회장은 "모교 병원이 국내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이상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공연에서는 팝페라 가수 마리아, 퓨전국악그룹 헤이야, 가수 전영록 씨가 출연해 후원자들에게 흥겨운 음악을 선사했다.

발전후원회는 모교 병원, 모교 어린이병원, 분당 모교 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함춘후원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5년 1월, 교육 연구 진료 및 불우환자 지원, 국민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李泰鎭교수 등 26명 정년

"가르침과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7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李長茂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26명의 정년식이 열렸다.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泰鎭(국사학)교수, 宋榮培(철학)교수, 琴章泰(종교학)교수, 鄭在明(수리과학)교수, 崔明彦(화학)교수, 閔弘植(전기공학)교수, 李錫浩(컴퓨터공학)교수, 李鍾德(전기공학)교수, 李泓熙(화학생물공학)교수, 金昞東(식물생산과학)교수, 柳寬熙(바이오시스템소재학)교수, 朴官和(농생명공학)교수, 李庸煥(농산업교육)교수, 李宗宰(교육학)교수, 韓基祥(독어교육)교수, 金東進(체육교육)교수, 鄭淸喜(체육교육)교수, 李仁世(수의학)교수, 李承基(약학)교수, 張日武(제약학)교수, 朴贊一(의학)교수, 申英秀(의학)교수, 趙士先(의학)교수, 崔康元(의학)교수, 李善子(보건학)교수, 金東建(행정학)교수.

한편 이날 金容德(동양사학)교수, 李泰秀(철학)교수, 徐庸宣(서양화)교수가 명예퇴직, 金道然(재료공학)교수, 梁彰洙(법학)교수가 의원면직했다. 〈다음 호에 프로필 게재〉

모교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

재학생 2백65명에 8억여원 전달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은 지난 2월 26일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2009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발전기금은 매년 5백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학기에는 2백65명에게 8억 6천1백만원을 수여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행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부자와 장학생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로 자리잡았다"며 "후원자분들로부터 이 행사를 통해 장학생들을 직접 만나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대인은 각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아끼는 위대한 전통을 일궈왔다"며 "장학생들도 이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을 따뜻이 보듬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서울대인이 될 것"을 당부했다.

'새싹 멘토링 장학기금'의 기부자인 金鮮東(화학공학53-63)동문은 격려사에서 "사회 발전과 더불어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많지만 재원이 충분치 못해 그 꿈을 접는 일이 있다"며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해 우수한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속적이고 안전적인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금별로 장학증서 전달식을 마친 후 남보라(간호07입)양이 장학생을 대표해 감사의 뜻이 담긴 답사를 했다.

2부 만찬에서 장학생들은 직접 쓴 편지를 출연자에게 전했으며, 즉석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발전기금은 1백여 개의 장학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백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모금 캠페인 'Vision 2025' 추진으로 예우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장학기금이 크게 증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李長茂총장, 金明煥교무처장, 張在盛학생처장, 朱鍾南기획실장, 사회대 林玄鎭학장, 간호대 宋美順학장, 생활과학대 朴貞姬학장, 南益鉉발전기금 상임이사, 지구환경과학부 李尙默교수, 그리고 태광사 李龍熙회장, 미래국제재단 金鮮東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榮〉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프로그램

맞춤형 장례서비스 첫 시행

조문 중인 李長茂총장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 이하 발전기금)은 지난 1월 연고가 없는 개인 기부자의 장례절차를 맡아 기부자에 대한 맞춤형 장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 유증한 고인은 지난 2007년 9월 모교에 기부 의사를 밝히고 유언 공증 요청과 모교 병원의 건강 검진을 희망한 바 있다. 또 발전기금의 예우 서비스 중 장례절차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발전기금은 유족이 없는 고인을 위해 빈소마련, 발인, 장지구입 등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도맡아 유족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향후에도 고인의 산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관리하게 된다.

이 기부자의 장례식에는 모교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朱鍾南기획실장, 의과대학 任廷基학장, 南益鉉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직접 참석했다.

발전기금은 이러한 장례서비스를 요청한 기부자에게 먼저 맞춤 예우를 제공할 펀드레이저(기금모금자)를 배치한다.

또 이를 신청한 기부자에게는 모교 병원에서 건강검진 진료를 예약하고 간병 도우미를 추천해 고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고 기부자가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

南益鉉발전기금 상임이사는 "2006년부터 모교가 집중적인 모금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많은 분께서 후원하고 있다"며 "기부자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유증은 모교를 가족처럼 믿고 맡겨준 기부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교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인을 모셨던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모교를 신뢰하고 유증을 통해 기부에 동참하신 후원자가 기부의향을 밝힌 시점부터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정성을 다해 기부인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술관

체코 현대미술전 개최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주한 체코대사관과 공동으로 '체코 현대 미술 : 할루페츠키상을 수상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체코공화국이 2009년 유럽연합(EU)의 의장국을 맡은 것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체코의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인 '인드르지흐 할루페츠키 미술상' 수상자 9명의 설치 및 영상작품을 소개한다. 〈榮〉

문화 향기 가득한 관악캠퍼스 투어

서울대발전기금은 선후배간 만남을 주선하고 학내 다양한 문화시설 및 전시를 관람하는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접수 : (재)서울대발전기금 캠퍼스 투어 담당자
- Tel : 02-871-1222 / Fax : 02-872-4149
- 홈페이지 : http://www.snu.or.kr / E-mail : snuf@snu.ac.kr

◆참 가 비 : 없음.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모집단위 : 20명 내외
- 단과대·특별과정·학과별 사전 신청에 따라 졸업기수 형태로 진행 예정
- 기수 당 20명 내외

◆내 용
- 학내 문화시설 및 전시 관람 및 교내 인사·후배와의 만남
- 기타 학내 체험 등

* 학내 투어 기관은 단과대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 長 茂

재학생의 소리

순수 아마추어의 아름다운 도전!

權 순 샘
(체육교육07입)
모교 하키부 주장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학교를 대표하는 22개의 운동부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체육교육과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하키부는 1956년 처음으로 창설돼 현재 감독 權純勇(체육교육85-90)교수님과 코치이신 전현수 선생님의 지도 하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긴 전통을 자랑하는 운동부입니다.

하키부는 현재 재학생 선수 13명과 주무 5명으로 구성돼 있고 매년 대학 1부 선수들과 경쟁하며 춘계리그 종별 선수권대회 등의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월 27일부터 펼쳐지는 전국 춘계남녀하키대회를 시작으로 5월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 등 많은 시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일본의 Hitotsubashi, Tsukuba 대학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함으로써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우정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1부에 소속돼 있는 강원대학교 하키부와 교류전을 치르고 있으며 매년 두 번의 OB전을 하면서 선배님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의 운동부와 달리 하키부를 포함한 서울대학교의 운동부는 모두 흔히 말하는 '엘리트 체육'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수생활을 하지 않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력에서 타 대학의 선수들에 크게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키에 대한 열정과 순수 아마추어 정신으로 무장한 서울대학교 하키부는 지금도 1승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키를 사랑하고 서울대학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구슬땀 흘리며 운동하고 있지만 좋은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생이 부담하기엔 값비싼 장비, 마땅히 연습할 필드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비인기 종목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찾아 나가는 서울대 하키부에게 따듯한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콩트 릴레이

산다는 것

金 基 元
(불문65 - 73)수필가

"어디까지 가세요?"

차에서 막 내린 노인네 소리나는 쪽을 본다. 30대 초반 여인의 초조한 목소리다.

"서울이오."

"저 좀 태워 주실 수 없어요?"

"왜 그래야 해요?" 그가 그녀의 아래위를 훑어보며 묻는다.

"차편이 없어서요."

노인네 머뭇머뭇하다 말한다. "그렇게 하시오."

"고맙습니다."

여인이 서둘러 다른 차 뒤에서 여행용 가방 두 개를 가져온다. 그가 트렁크를 열고 그녀가 가방을 싣는다. 여자가 뒷자리를 쳐다본다.

"앞에 타시오!"

노인네는 하고많은 차 중에서 왜 내 차인가 하고 머리를 흔든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 일전에도 한 젊은이가 배고파 그런다며 돈 좀 달라고 해서 몇 푼 준 적이 있다. 허우대가 멀쩡한데 웬 동냥이냐는 소릴 할 수 없었다. 안 주면 그만이지 주고받아야 되는 이유를 묻고 답할 계제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요즘은 전쟁 끝난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렵지 않은가. 천하장사라도 일거리 없으면 놀고 배곯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그렇게 물렁하게 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그가 운전석에 앉는다. 여인이 앞자리 밑에서 카메라를 집어들고 엉거주춤해 하자 노인네가 받아 뒷자리에 놓는다. 그가 늘 필수 휴대품처럼 갖고 다니는 카메라다. 노인네 차 시동을 걸려고 하다 멈춘다.

"아참, 내 정신이라니! 예서 기다리시오! 5분 있다 오겠소. 차 몰고 가지 마시오!"

"예."

노인네 안내소에 가서 인터넷 이메일을 서핑한다. 그렇게 하려고 휴게소에 들렸다가 그 여인 때문에 까맣게 잊은 일이다. 돌아온 노인네 운전석에 앉자마자 여인에게 묻는다.

"운전할 줄 아시오?"

"예,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가 운전대에 꽂혀 있던 키를 돌려 엔진 시동을 건다. 가속페달을 밟으며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를 떠난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속도로 진입하고 한참 달리고 난 후에야 남자가 묻고 여자가 답하는 식으로 대화가 간간이 이어졌다. 여자는 옥산휴게소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왔으나 약속하고 달라 돌아가는 길이라 했다. 남편이 무얼 하길래 여자가 일거리 찾아 나서냐고 남자가 묻자, 이혼했다고 여자가 답했다.

운전하던 남자가 혀를 끌끌 차며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의 프로필이 조금 길다 싶었고 아까 휴게소에서 보았을 때 여자의 검은 외투가 어쩐지 짧더라는 첫인상이 되살아났다.

아이 둘은 할머니한테 맡겼다 했다. 그동안 무얼 했냐고 하자 미술학원 강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혼한 남자는 클래스메이트였는데 직장생활을 힘들어했다고 했다. 학교 친구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그렇게 남자를 몰랐냐고 묻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인용했다. 하긴 지가 저도 모르는데 남을 어찌 아냐고 남자가 퉁명스레 말했다. 사는 게 힘이 든다고 여자가 투덜댔다. 특히 이혼하고 그렇다고 했다. 대화가 끊어지자 여자가 꾸벅꾸벅 졸았고 남자도 졸음이 와 안성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운전대에서 키를 뽑아 간 남자가 커피 두 잔을 들고 와 한 잔을 여자에게 줬다. 여자는 이를 받아들고 피로하실 텐데 한숨 주무시고 가시라고 남자에게 권유했다. 남자는 시동을 걸었던 엔진을 끄고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여자가 남자를 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라고 생각하고 남자도 그렇게 웃으며 컵 홀더에 놓여있는 사과를 여자에게 권했다. 그리고 서울로 향했다.

'수원-신갈 지체'라는 도로 위 사인보드를 본 것은 휴게소를 떠난 지 30분이 지나서였고 그래서 그런지 차의 흐름이 느렸다. 그들은 서울톨게이트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성격이 그렇게 수동적인 걸 보니 혈액형이 A형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O형으로 바꾸게. 그리고 활달한 척 하게, 배우 연극하듯."

셀폰에서 인터넷서점 '알라딘' 책 배송 음성메시지가 흘러나온다.

"책을 읽나?"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가끔 잡지를 보긴 합니다."

"인터넷 이용하나?"

"아니요. 직장 따라 다니기 때문에 이용 못합니다."

"그래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직장 구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살아남으려면 많이 참고 고생해야겠구먼. 힘들어도 책을 읽게.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네 마음이 삐뚤어질까봐 하는 소릴세."

"예."

"그리고 용기를 가져. 아직 젊으니까."

그는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린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가난은 6·25이전 1~2년부터다. 미 군정청에서 나오는 밀가루나 설탕배급을 받아먹던 시절, 6·25전쟁기간 그리고 50년대 내내 이어지던 궁핍, 하위중산층으로 미국에서 살던 중 만났던 IMF환난도 겪었고 현재도 진행형 중인 궁기, 미국과 한국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처지 등 몇 초 사이에 그의 가난에 대한 역사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그는 헛기침을 한다.

"내 생각에는 말일세" 하고 그는 그녀의 침묵이 자기 때문이라도 되는 양 변명하듯 말한다.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이 무언가?"

"미술학원입니다. 미술이 전공이고 경험도 약간 있어 학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 목표가 있으면 됐네. 문제는 돈을 모아야하는 게로군."

"예."

"2~3년 눈 딱 감고 남의 밑에서 억척스레 일해야 되겠군. 그리고 말일세. 영어도 좀 배우게. 학원도 차별화해야 살아남는 게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림만 가르칠 게 아니고 영어도 섞어서 가르쳐야된다는 거지. 왜 경쟁력, 경쟁력 하잖나. 그리고 영어, 영어 해쌌고. 학부형의 허영심을 조금 만족시켜준다고 할까. 그 효과야 의문시되지만 역효과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 어렵더라도 틈틈이 영어교습법을 익혀 학원 낼 때 경쟁력 있는 학원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게."

"헤어진 남자는 결혼했나?"

"모릅니다. 조금 있는 집 사람인데다 혼자 살기에는 의지가 약해 모르기는 해도 재혼했을 거예요."

"아, 그래?"

"위자료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받았을 뿐 아이들 양육비 등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싸우기 싫어 안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그녀가 그의 마음,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자꾸 캐묻는 것이 미안하다 하면서도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라도 했는지 화제를 돌린다.

"응, 시골에 사시는 형님하고 누님을 뵙고 의정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시골 어딘데요?"

"옥천이야. 충청북도 옥천. 대전 바로 밑이지."

"아, 그래요? 저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대학졸업 후 그곳을 아주 떠났지만요."

"부산 좋은 도시지, 옛날만은 못해도."

"선생님은 고향이 옥천이에요?"

"그려, 대대로 살아오던 곳이지. 누님은 붙박이처럼 고향에 사시고 형님은 서울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다 은퇴하신 후 낙향하신 거고."

"좋으시겠어요. 형제분들이 계셔서."

"왜, 자네는 형제가 없나?"

"예, 저 혼자예요."

"그거 안 됐군."

그는 고향으로 떠나기 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사 들고 간 큼지막한 생대구를 받고 좋아하시던 형님과 누님 얼굴을 떠올리며 슬며시 미소짓는다. 그리고 가다가 먹으라고 누님이 싸주신 트렁크 안에 실은 두 개의 홍시 생각이 나서 그걸 그녀와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더구나 아까 그녀에게 아침 먹었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먹었다고 답했지만, 대답이 신통치 않았던 느낌이 되살아났다.

"선생님, 왜 웃으세요?"

그녀가 웃으며 묻는다. 그가 옆을 보니 그녀의 희미한 미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였다.

"으응, 형님과 누님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옛말에도 노인 되면 도로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있잖나. 그분들이 어린애가 돼 가시는 것 같아.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말이야. 나도 조금 더 나이 들면 그렇게 되겠지."

저 앞에 서울톨게이트가 보인다. "톨게이트에 누가 나온다고 했던가?"

"예."

"자, 다 왔네."

"그런데 선생님, 연락처를 주실 수 없으세요?"

"왜?"

"나중에 여유 있으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됐네, 이 사람아. 잔소리는 이것으로 충분하네."

그가 톨게이트를 지나 차를 세우고 그녀가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낸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뒷주머니 지갑을 꺼내야할지 말지 망설인다.

그녀가 말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가 짐짓 놀란다.

"어여, 가게!"

그녀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서자 그가 그녀를 부른다.

"여보게, 잠깐!"

의아해하는 그녀에게 그가 말한다.

"하이파이브라도 해야지!"

> "그렇게 남자를 몰랐냐고 묻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인용했다. 하긴 지가 저도 모르는데 남을 어찌 아냐고 남자가 퉁명스레 말했다. 사는 게 힘이 든다고 여자가 투덜댔다. 특히 이혼하고 그렇다고…."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 - 07)동문

동 정

수 상

▲李御寧(국문52-56 前문화부 장관·중앙일보 상임고문)=지난 2월 15일 저서 '하이쿠의 시학'(서정시학刊)으로 유럽 일본연구소에서 수여하는 제4회 마사오카 시키 국제 하이쿠상 수상.

▲朴仲鉉(토목공학53-57 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재단법인 삼일문화재단이 수여하는 3·1문화상(기술상) 수상.

▲高永根(국문56-61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재단법인 삼일문화재단이 수여하는 3·1문화상(학술상) 수상.

▲邊秀一(물리59-63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재단법인 삼일문화재단이 수여하는 3·1문화상(학술상) 수상.

▲鄭昭盛(불문64-69 단국대 교수·소설가)=지난 2월 27일 단국대 교수 정년퇴임식에서 대한민국 근정포장 수훈.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슨스 회장)=지난 2월 24일 대한민국 창조경영인 시상식에서 미래경영부문 창조경영인상 수상.

▲尹永斗(기상학71-78 아시아나항공 사장)=지난 2월 17일 세계적 권위의 항공전문지 ATW가 수여하는 항공업계의 노벨상인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鄭寅億(경제73-77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보통신정책위 부의장)=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한국 유치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朴相熙(AMP 26기 중소기업포럼 회장)=지난 1월 16일 아시아·유럽미래학회가 수여하는 제7회 글로벌 CEO 대상 수상.

▲李義鉉(AIP 20기 대일특수강 대표·중앙대 겸임교수·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감사)=지난 2월 5일 한국경제신문사로부터 '2009 대한민국 기술혁신경영대상' 수상.

▲裵錫柱(AIC 11기 동양텔레콤 대표)=지난 2월 12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여하는 '1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

인 사

▲劉載天(사회57-61 KBS 이사장·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지난 2월 18일 임기 4년의 상지대 제7대 총장에 선임.

▲朴容晟(경제59-65 중앙대 이사장·대한올림픽위원장)=지난 2월 19일 임기 4년의 대한체육회 37대 회장에 선출.

▲孫吉丞(상학59-63 SK텔레콤 명예회장·본회 부회장)=지난 2월 13일 임기 4년의 대한펜싱협회 회장에 선임.

▲李容璟(전자공학60-64 국회의원)=최근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원내수석부대표에 선임.

▲金東建(경제61-65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지난 2월 20일 재단법인 한국철도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에 취임.

▲金平祐(법학63-67 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지난 2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5대 회장에 취임.

▲孔錫英(교대원64-66 前동덕여대 대학원장)=지난 2월 1일 한국기업케어앤클리닉 글로벌인재개발원장에 취임.

▲李一恒(전기공학66-70 인하대 교수)=최근 아시아인 최초로 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포토닉스테크놀로지레터스'의 편집위원장에 선출.

▲裵仁俊(철학70-74 동아일보 논설주간·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17대 회장에 선출.

▲朴聖姬(가정관리73-77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에 선임.

朴杉沃교수

李侑載교수

朴鍾逸교수

徐世源교수

徐榮俊교수

趙成權교수

2008년도 우수학자 선정

11명 중 朴杉沃교수 등 9명이 동문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2008년도 우수학자' 11명(사회과학 3명, 자연과학 8명)을 선정했다. 이 중 9명이 모교 출신이다.

올해 인문사회 분야는 사회과학 우수학자 3명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동문은 모교 지리학과 朴杉沃(지리68-72 평의원회 의장)교수와 경영학과 李侑載(경영77-82)교수이다.

한편 자연과학에서 수학 분야는 모교 수리과학부 朴鍾逸(수학82-86)교수, 물리학 분야는 부산대 洪德基(물리77-81)교수와 광주과학기술원 李光熙(원자핵공학79-83)교수, 생물학 분야는 모교 화학부 徐世源(화학69-73)교수와 약학과 徐榮俊(제약학77-81)교수, 지구과학 분야는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趙成權(지질학64-68)교수와 경북대 黃在贊(천문80-84)교수를 선정했다.

자연과학 우수학자에게는 최대 10년간 매년 2억원(이론 분야는 1억원), 인문사회 우수학자에게는 향후 5년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한다.

우수학자는 '국가석학(Star Faculty)'이라는 이름으로 기초과학 분야만 2005년 11명, 2006년 10명을 선정했다. 2007년 '국가석학' 명칭을 '우수학자'로 바꾸고 인문사회 분야를 추가해 15명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전체 우수학자 47명 가운데 41명이 서울대인이다.

▲黃奎昊(경제74-78 前SK 최고홍보책임자·SK그룹 비서실장 부사장)=최근 SK해운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金南豪(의학74-80 김남호내과의원장)=최근 인천광역시의사회 제10대 회장에 선출.

▲朴美正(간호75-79 대불대 교수)=최근 기초간호자연과학회 제6대 회장에 선출.

▲權暎壽(경영75-79 LG디스플레이 사장)=지난 2월 16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장에 선출.

▲朴愚允(의학78-84 충북대 의대교수)=최근 오송바이오포럼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

▲金東洙(행대원80-83 前기획재정부 제1차관)=지난 2월 13일 한국수출입은행 제16대 행장에 취임.

▲安鎬元(HPM 6기 부천대 교수·법무부 법죄예방위 홍보위원)=지난 2월 6일 서울영등포문학협회 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

▲趙卿來(AIP 24기 HSBC은행 기업금융부문 부대표)=지난 2월 12일 HSBC증권 한국총괄 대표에 선임.

행 사

▲安鍾允(법학51-55 前한양대 교수·한국정책포럼 회장)=지난 3월 13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09 위기시대에서 요구되는 행정수반의 리더십' 정책토론회 개최.

▲張冥河(행정53-59 평화통일촉진본부 대표)=지난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평화통일촉진본부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兪東濬(잠사학56-60 한국단미사료협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부운장학회 이사장)=지난 2월 24일 서울 대방동 장학회 대강당에서 장학생 1백77명에게 1백만원씩 장학금 전달.

▲金載姓(회화56-60 서양화가)=지난 2월 17일 베트남 호치민미대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수교 17주년 기념 양국 작가 미술교류전에 출품.

▲李玉姬(기악60-64 서울튜티앙상블 음악감독)=지난 3월 14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故 金元福선생님 추모 음악회' 개최.

▲李鍾協(기악62-66 중앙대 명예교수·협스트링앙상블 음악감독)=오는 3월 18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협스트링앙상블 정기연주회 개최.

▲諸葛政雄(상학65-72 학교법인 대림학원 이사장)=지난 2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인 등단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예술학부 교수)=최근 서울 안암동 자택을 리모델링한 '서동희 도예 전시관' 개관전 개최.

▲金仁圭(정치69-73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18일 서울 봉천동지역아동센터인 '희망 신나는 집 문화학교'에서 제1호 'IPTV 공부방' 현판식 개최. 또 2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IPTV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 개최.

▲康一宇(섬유공학71-75 강&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장)=지난 2월 13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개최.

▲尹在錫(화학교육71-75 국민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27일 서울토박이의 삶을 술회한 에세이집 '나의 살던 서울은'(청어刊) 출판기념회 개최.

▲徐載鎭(사회75-82 통일연구원장)=지난 2월 1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李仁植(작곡82-86 성신여대 교수)=오는 3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바순 작품으로 작곡 발표회 개최.

▲李福男(작곡83-87 명지대 교수)=오는 3월 16일 서울 여의도동 영산아트홀에서 가곡을 비롯해 현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연주곡으로 작곡 발표회 개최.

▲송근영(동양화86-90 한국화가)=지난 3월 5~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Bridge Art Fair에 독일 Artodrome화랑 소속으로 참가.

▲尹智垣(기악86-90 충남교향악단 수석단원)=지난 3월 14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오보에 독주회 'Oboe & Strings' 개최.

▲崔智淵(기악88-92 비올리스트)=지난 3월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올라 4중주단 '콰트라브라체' 제4회 연주회 개최.

▲李恩汀(기악93-00 피아니스트)=지난 2월 10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주제로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 공연.

▲최유진(기악98-02 바이올리니스트)=지난 3월 7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타르티니, 프로코피에프, 아담스, 프랑크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張日碩(AMP 63기 새금융사회연구소장)=최근 경제부처 승진 사무관동호회 회원에게 1백만 실업시대에 대비해 어려운 경제 수장 돕도록 격려 서신 발송.

명복을 빕니다

(괄호안은 향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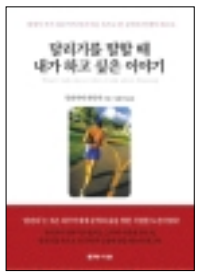
▲鄭鎭鎬(농공학46-49 신창엔지니어링 회장)=2월 19일 별세(81세)
▲金庸來(행정53-57 前서울시장)=2월 20일 별세(75세)
▲林昌圭(지리교육55-60 前상명대부고 교장)=2월 7일 별세(72세)
▲金鎭憲(농경제57-61 前부산매일신문 편집국장)=2월 18일 별세(71세)
▲韓豊烈(회화66-70 경희대 교수)=2월 6일 별세(67세)
▲金學浩(경대원72졸 前육군종합학교 전우회장)=2월 11일 별세(80세)
▲金奎章(법학81졸 前광주지법 부장판사)=2월 11일 별세(51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합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 任洪彬 옮김



문학사상사 任洪彬(법학52-56 테르메덴 대표) 회장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에세이를 우리말로 옮겼다.

달리는 소설가로 불리는 하루키가 달리기를 축으로 인생과 문학에 대해 품고있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계속 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가 느끼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끌어내어 '달리기'라는 테마를 통해 정직하게 들려준다.

이 책에서는 하루키 데뷔 30주년에 즈음해 어떻게 세계적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시작과 진행 과정을 밝혔다. 장편 11권, 단편 소설집 15권을 비롯해 90여 종의 작품을 발표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세계적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꾸준한 달리기였다.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처음 시작한 달리기는 하루키에게 강인한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지구력을 선사했다. 〈문학사상刊·값12,000원〉

내가 스친 역사들

— 朴涌培 지음

한국일보 정치부장·사회부장·상무이사,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한 朴涌培(외교59-64) 동문이 기자로 현장을 뛰는 동안 취재한 사람들에 대한 회상을 담았다.

이 책은 金昌悅, 장정호, 朴正熙, 張基榮, 張俊河 등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金昌悅씨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주필, 사장을 역임하고 YS정부 시절 방송위원장으로 일했으며, 장정호 씨는 한국일보 사회부장을 거쳐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을 지냈다. 한국일보 창간발행인으로 朴正熙정권 시절인 60년대 중반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張基榮씨는 언론계는 물론 정계, 관계, 체육계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한국일보를 매개로 인연을 맺은 뒤 저자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다.

한편 朴正熙 前대통령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월간 사상계 발행인을 지낸 張俊河씨의 생애도 그의 펜 끝에서 다시 살아난다. 〈따뜻한손刊·값12,000원〉

여강의 물결

— 여강시가회 편

고전시가를 연구하는 여강시가회(상임고문 元容文 국문60-66) 회원들의 여섯 번째 동인지.

26명의 시조, 13명의 시, 1명의 산문 작품을 묶었다.

여강시가회 리강룡 회장은 머리글에서 "그동안 동인들이 여강(여주를 지나는 남한강의 물줄기)가 신륵사에서, 李孝石의 봉평에서, 金裕貞의 춘천과 소양강댐, 청평사 등지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문학적 안목을 높여왔다"고 말한다. 또 "동인의 분포가 전국에 산재한 만큼이나 우리의 호흡도 크고 유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출판刊·값8,000원〉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전망

— 河龍出 編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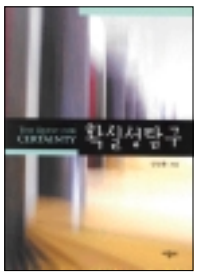
워싱턴대 한국학 석좌교수인 河龍出(외교67-71)동문 등 10여 명의 정치외교학과 출신 교수들이 지난 2006년 10월 모교 외교학과 50주년 기념 학술회의의 결과물을 펴냈다. 이 책은 크게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 연구 및 지역연구 현황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1부는 그동안 한국 국제정치이론의 발전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재인식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2부는 한국 외교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을 시기별로 나눠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 3부는 한국의 지역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미국, 중국 및 러시아 사례를 통해 점검했다. 〈서울대출판부刊·값13,000원〉

확실성 탐구

— 安健勳 지음

한국환경철학회장을 지낸 강원대 철학과 安健勳(대학원74-76 한국역사철학회장)교수가 좀 더 확실한 것, 좀 더 완전한 것에 도달해 보려는 탐구과정에서, 지적인 호기심을 자아내는 몇몇 사항들을 찾아내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정리한 책.



저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개념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과학 분야에서 기초개념으로 중요시되는 인과성문제를 다루는 한편, 인식론과 윤리학 등에서 불가피하게 다뤄야 할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거론해 분석했다.

이 책은 크게 '언어탐구', '인과성분석', '자유의지문제', '법칙·이론·설명', '추리와 응용' 부문을 다루며, 모두 15장(327쪽)으로 구성됐다. 〈서광사刊·값22,000원〉

한국의 반미

— 沈良燮 지음

인터넷커뮤니티 송알송알 공동대표인 沈良燮(동양사학80-87)동문이 한국 반미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조명한 책.

한국의 반미 원인은 정부 혹은 정치세력의 정치적 동기뿐만 아니라 한미 법문화 차이, 한국인의 정체성 고양, 반전평화 정서, 민족공조론, 미국 대외정책이라고 제시한다.

저자는 한미 법문화 차이와 한국인의 고양된 정체성은 특히 신효순·심미선 사망사건 후 일어났던 반미촛불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반전평화 정서는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에, 민족공조론은 북핵 관련 반미운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또 미국의 일방주의적이며 강경일변도의 대외정책은 이라크파병 반대운동과 북핵관련 반미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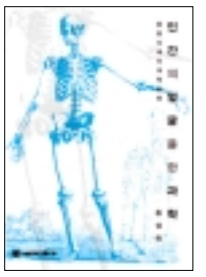
이 책은 반미라고 하는 극히 민감한 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었을 뿐 아니라, 한국 반미주의의 전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결합해 한국 반미주의에 대한 저자 특유의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울아카데미刊·값26,000원〉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 洪性旭 지음

모교 생명과학부 洪性旭(물리80-84)교수가 문화로서의 과학이 갖는 다양한 '얼굴'을 분석한 책.

과학과 인문학, 과학과 예술, 과학과 건축, 과학과 언어, 과학과 젠더(gender), 과학과 법, 과학과 인권, 과학과 과학(박물)관 등 여덟 가지 주제를 각각 한 장에 걸쳐서 다뤘다. 마지막 장에는 과학과 기술, 과학과 언론, 과학과 신과학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주제를 분석하면서, 과학·비과학의 경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를 모색했다.



洪교수는 과학이 자신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이나 활동과 맺고 있는 접점과 상호 작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과학문화의 비전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서울대출판부刊·값12,000원〉

법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

— 韓相泳 지음

법무법인 백석 변호사인 韓相泳(경제83-90)동문이 그동안 경제실무에서 경험했던 기업, 금융, 증권, 국제, 조세 등과 같은 경제현상들을 법률가의 관점에서 재음미해 법과 경제의 관계를 정리했다.

저자는 모교 졸업 후 산업은행, 미국 Chemical Bank, 일본 장기신용은행 등의 국내외 합작회사인 새한종합금융에서 9년 동안 기업, 금융증권 등을 두루 섭렵하면서 종합적인 금융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금융에 관한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법과 경제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쉽게 풀어냈다. 〈법률저널刊·값16,000원〉

이PD의 뮤지컬 쇼쇼쇼

— 李智源 지음

뮤지컬에 조예가 깊은 SBS 예능국 李智源(화학92-99)PD가 감명 깊게 본 국내외 뮤지컬 30편을 추천하는 책.

이들 작품은 저자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라 글 속에 현장감이 넘친다. 기본적인 뮤지컬의 줄거리와 배경 소개는 물론 저자가 느낀 뮤지컬 감상기와 독자들을 위한 감상포인트를 담았다.

또한 각 작품마다 화려한 무대, 공연 포스터, 유명 배우들의 사진 자료와 흥미로운 무대 뒷이야기를 실어 뮤지컬의 매력과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부록으로 뮤지컬을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한 알짜 정보를 담은 실용 가이드를 엮었다. 〈삼성출판사刊·값12,000원〉

공 연

송호섭 클라리넷독주회

— 3월 22일 세종문화회관

클라리네티스트 송호섭(기악93-97 충남교향악단 수석)동문(사진)이 3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춤'을 주제로 여덟 번째 독주회를 갖는다.

독일 뮌헨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송 동문은 이날 루토슬라브스키, 코바첵, 바르톡, 템플톤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 영음예술기획 581-5404〉

任美貞피아노독주회

— 3월 24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任美貞(기악84-88 한세대 교수)동문(사진)이 3월 24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세상의 모든 음악' 시리즈의 세 번째 공연을 펼친다.

이날 任동문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와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 러시아 대가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다. 〈공연문의 : 뮤직필 706-1481〉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6-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회(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종(경제학59-63)
△김정식(통신공학48-56)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박호전(경영학62-66)
·김영희(작곡62-66)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자행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공학48-52)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2억원
△남정현(건축학57-61)
△이종기(경영학69-73)
△장학순(토목공학46-50)
△조필제(조선항공46-50)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촌5부자
◆1억2천만원
△엄병윤(외교학60-64)
◆1억1천1백20만원
△미술대학동창회
◆1억1천만원
△성백전(토목공학52-56)
·김안순(화학공학54-58)
△수학과동창회
◆1억30만원
△박성훈(기계공학58-63)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곽동헌(법학61-65)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묵(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67-71)
·추경옥
△오흥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화학과동창회
◆5천30만원
△이종헌(경제학59-65)
·신갑순
◆5천10만원
△박남식(SGS 2기)
◆5천만원
△강인구(수의학59-64)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종기(생물교육51-55)
△김종서(경제학58-63)
△김종헌(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윤(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순석(약학61-65)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효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허병하(상학58-62)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농대 일산회
△한우리SJM
◆3천60만원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흥일(영어교육60-64)
△심형윤(토목공학52-56)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악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신혁(문리66-73)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송명호(자원공학59-65)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최정길(금속공학52-5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1천2백만원
△강응선(치의학78-84)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한규택(원자핵공73-77)
◆1천1백50만원
△천남중(자원공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졸)
◆1천1백10만원
△이홍종(역사교육54-58)
◆1천1백만원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욱(약학55-59)
◆1천30만원
△박만호(행정학57-62)
△심이택(화학공학57-63)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형하(법학74-78)
△지헌택(치의학43-47)
△허성길(경제학60-64)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F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종(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재호(생물교육53-57)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김평우(법학63-67)
△류태환(상학48-54)
△문규철(응용화학69-73)
△문대원(경영학71-75)
△문명국(기계공학73-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회(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배명인(법학52-56)
△백사익(채광학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악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안경상(행정학57졸)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유희춘(상학49-55)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동철(토목공학78-82)
△이병재(경대원69졸)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윤(영어영문50졸)
△이송은(상학53-57)
△이인기(지질과학62-66)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창원(법학55-60)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익용(기계공학54-58)
△장지준(의학70-77)
△장휴동(농경제학59-63)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준기(조선항공57-61)
△추재옥(의학63졸)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한창섭(정치학57-62)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함정호(행정학53-57)
△허 선(정치학64-68)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황남주(물리학87-92)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9백만원
△김상복(종교학57-63)
◆7백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6백만원
△김현산(법학54-58)
◆5백만원
△박수복(농생물학56-61)
△신박일(약학60-64)
△윤성근(공업교육74-78)
△윤순녕(간호학69-73)
△윤의석(축산학49-53)
△이윤경(간호학65-69)
△이현구(AMP 52기)
△조상근(행정학69-73)
△조원환(AMPP 6기)
△법대37회 동기회
△AMPFRI동창회
△FIP동창회(김명도)
◆3백50만원
△임장주(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화학57졸)
△이종복(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한규범(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권숙일(물리학54-58)
△권혁창(지구과학69-76)
△김영수(법학60-64)
△김재율(경성법전39졸)
△박긍식(화학54-58)
△안재동(상학60-67)
△이동수(건축학61-66)
△이성기(행대원63-65)
△이재식(교육학75-79)
△임채주(경제학55-59)
△정영채(수의학56-60)
△하재규(농학53-57)
◆2백50만원
△홍순명(축산학68-72)
◆2백30만원
△강충원(전기공학59-65)
△이준형(GLP 11기)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9년 2월 24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1백30만원
△김종철(치의학71-77)
△추호석(경영학69-73)
◆1백10만원
△김긍립(약학62-66)
△김동만(GLP 15기)
△박창순(기계공학64-68)
△송경희(국악59-63)
△이근남(불어불문68-72)
◆1백만원
△오진환(법학75-79)
◆40만원
△노선호(AMP 24기)
△정수현(교육학80-84)
◆30만원
△김선일(국어국문61-65)
△민경식(전기공학50-55)
△박진원(산업공학71-75)
△송종의(법학59-64)
◆20만원
△박상욱(체육교육02-06)
△조정수(전기공학57-61)
△최성태(경영학62-66)
◆10만원
△강용규(농경제학63-67)
△고종환(기계항공00-04)
△김교창(농화학53-57)
△신동숙(가정교육59-63)
△엄경은(불어교육84-88)
△유정숙(체육교육64-68)
△윤상문(기계공학69-73)
△이계훈(경제학51-55)
△이동신(미생물학81-85)
△이상원(영어영문87-92)
△장연수(전기공학02-06)
△정산용(섬유공학69-73)
△정용진(언론정보98-06)
△최정우(물리학64-68)
△홍태식(국어교육67-71)
〈이상 2009년 1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위에서 본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장학빌딩 건축현장. 지하 6층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2일 현재 공정률은 26%. 3월말~4월초쯤이면 지상층 공사가 시작돼 장학빌딩의 위용이 조금씩 드러날 전망이다.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09년 1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8. 12. 17.~09. 1. 22)·일반(08. 12. 16.~09. 1. 20)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李相周= 5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충원 공대㊾ △구자남 공대㊷ △김 형 공대㊽ △김수신 의대㊾ △김영무 법대㊿ △김영수 법대㊿ △김영아 간호㊹ △김태호 AIP㉖ △김현덕 사대㊸ △김현미 사대㊷ △김형민 공대㊼ △김홍남 문리㊼ △남혜숙 미대㊷ △문명국 공대㊸ △박동현 법대㊿ △박미선 생활㊷ △박영노 AMP㊽ △박영하 의대㊻ △박오식 AFB⑤ △박인숙 간호㊶ △박인철 AMP㊸ △박철원 상대㊹ △박현배 GLP⑫ △박호전 상대㊷ △백용수 HPM⑲ △부영욱 HPM⑬ △손기호 법대㊾ △신기열 GLP④ △신영철 문리㊼ △안병제 공대㊺ △오필현 경영㊾ △우관희 농대㊸ △우웅렬 약대㊼ △유해덕 법대㊸ △이광우 공대㊸ △이미순 농대㊻ △이상희 자연㊶ △이왕준 의대㊻ △이한목 경영㊿ △장 욱 경영㊹ △장낙순 SGS⑩ △전윤식 공대㊶ △전재홍 AIP⑰ △정규영 상대㊺ △정명채 공대㊺ △조병식 AMP㊺ △조운조 음대㊹ △조원환 AMPP⑥ △채명규 공대㊺ △채병호 약대㊿ △최기용 의대㊹ △최병철 경영㊹ △최영희 문리㊶ △최용준 사대㊶ △최창식 의대㊹ △추호석 상대㊾ △한영옥 미대㊽

〈일반〉 △고광범 상대㊾ △고완섭 ACAD㊹ △구정자 농대㊹ △권안도 문리㊶ △권지원 경영㊽ △김경립 공대㊷ △김기욱 공대㊾ △김도승 상대㊿ △김동욱 공대④ △김명기 GLP⑯ △김병각 약대㊸ △김수천 인문㊺ △김용갑 ACPM② △김이환 AMPF⑨ △김익동 AIC③ △김인극 ACAD㊺ △김인기 공대㊹ △김정현 사대㊹ △김중식 의대㊾ △김현정 농생㊸ △김호철 의대㊸ △남궁은 의대㊻ △남유진 인문㊷ △류동균 법대㊼ △민수홍 공대㊿ △박만홍 AIP㊳ △박영구 GLP⑰ △박영래 사회㊸ △박재면 공대㊻ △박창환 AIP㊳ △박형채 공대㊿ △박희임 의대㊾ △서원호 상대㊾ △서지연 의대④ △성기탁 AIP⑳ △성지용 법대㊷ △송윤석 공대㊾ △신덕재 치대㊽ △신용식 GLP⑰ △신윤경 경영㊻ △신희명 사대㊾ △안 홍 行院㊺ △안정환 농대㊾ △안종태 공대㊷ △안현모 인문㊷ △양재준 법대㊸ △우관식 공대㊻ △유 걸 공대㊾ △유영미 의대㊷ △유준위 자연㊽ △윤성진 공대㊷ △윤의광 공대㊾ △이강희 AMPF⑥ △이건실 공대㊸ △이경숙 간호㊷ △이광헌 공대㊽ △이도현 공대④ △이민수 공대㊺ △이상만 문리㊸ △이석우 농대㊾ △이선규 AIP㊳ △이성미 인문㊿ △이순원 사대㊹ △이영석 SPAR④ △이영욱 경영㊿ △이은송 수의㊷ △이의시 SPAR⑨ △이정우 공대㊷ △이창근 농대㊽ △이춘배 의대㊸ △이화영 사대㊾ △이효건 사대㊻ △임복순 인문㊸ △임서정 사회㊹ △임세진 공대㊼ △임효근 의대㊺ △전수경 공대㊼ △전승호 법대㊻ △전영민 생활㊻ △전재희 사대㊷ △정기수 농대㊹ △정명택 법대㊿ △정문모 상대㊶ △정범호 AMP㊶ △정병채 인문㊷ △정연문 ACPM④ △정연진 사회㊽ △정웅진 상대㊸ △조동준 사대㊺ △조영언 법대㊷ △조용만 ALP③ △주형진 공대④ △차운아 사회㊻ △채병화 농대㊾ △최성태 상대㊷ △최영태 농대㊺ △최영호 의대㊽ △최은정 大院㊷ △최정우 공대㊸ △한관렬 농대㊻ △허병우 상대㊻ △홍양식 AIP㉟ △황규인 AMP㊷ △황준식 의대㊺

이 사

◆인문대 △나성린㉒ △송기국㉖ △장소원㊿ △최규식㉓ △최승환㉖

◆사회대 △구영수㉚ △김익성㉕ △성은식㉖ △신철식㉓ △이건희㉓ △이상권㉒ △표희선㉖ △한병송㊺

◆자연대 △김남수㉓ △김대식㊶ △김병극㉙ △남기봉㉓ △신현철㉘ △장성기㉒ △전승준㉔ △현동우㉒

◆간호대 △오향순㊷ △정병석㉜ △정은자㊷

◆경영대 △박기환㉙ △윤병은㉒ △이호선㉕ △임종민㉓ △조을연㊻ △진영곤㉕

◆공대 △강 관㊿ △강시규㊸ △곽희로㊶ △구정기㉓ △권용수㊶ △권익현㉙ △김국호㊺ △김남호㉚ △김명근㉝ △김병수㉙ △김석주㊽ △김윤수㉕ △김의수㉗ △김진원㊽ △김태원㉟ △김현중㉚ △김호수㉝ △김홍식㉖ △노연상㉚ △노융래㉒ △민경식㉗ △박경명㊻ △박상표㉟ △박승건㉖ △박재기㉜ △박찬백㉗ △박창순㊹ △박창호㊺ △방수일㊹ △변응헌㊻ △서완석㉙ △성기초㉛ △송배원㉕ △송재병㊻ △신기룡㉚ △신동주㉙ △안수길㉚ △안인환㉛ △우세훈㉕ △원종환㉜ △유옥주㊷ △유재현㉛ △윤조덕㉙ △이관수㊽ △이대락㉜ △이문희㉕ △이승종㉚ △이승준㉟ △이신옥㉜ △이원도㉙ △이윤섭㉓ △이종호㉙ △이주범㉟ △이창복㉟ △이혁재㊻ △임근희㉔ △정명식㉚ △정성민㉑ △정주희㉕ △정헌생㊹ △정현일㊿ △정형수㉙ △조두현㉖ △주정훈㊶ △지성균㉑ △최 연㊽ △최선주㉙ △하서용㊼ △한승환㉙ △황대석㉘ △황인석㊽ △황해근㉔

◆농대 △권명구㊽ △김근영㉕ △김상국㉑ △김진오㉙ △김풍진㉑ △류기락㊶ △민병렬㉓ △민옥기㉓ △박상진㉙ △신대용㉓ △오달희㉙ △유성곤㉓ △유장렬㊽ △윤상묵㊹ △이미경㉔ △이병일㉗ △이우진㉔ △이정재㉙ △임열재㉔ △정용문㉗ △조국광㉕ △조성인㉗ △홍병만㉙

◆문리대 △권혁방㉕ △권혁조㉓ △김재실㉓ △김종하㉗ △남궁견㉙ △남시욱㉔ △박한제㉙ △송규정㉓ △신상우㉔ △신준희㉗ △우병규㉑ △유형균㊽ △이계희㉔ △이광찬㉘ △이문규㉑ △이민웅㉑ △이병형㉗ △이상원㉑ △이성우㉓ △이정순㉔ △이철배㉙ △이형구㉙ △임병선㉑ △임석진㉜ △임한순㉚ △정구훈㉕ △하영준㉕ △한필순㉗

◆미대 △강동순㉗ △곽병두㊹ △곽순화㉒ △박소영㉓ △오영희㉕ △조남석㊺ △차명희㉔

◆법대 △구만회㉖ △김기인㉘ △김상우㊻ △김선옥㉓ △김승옥㉚ △김윤성㉖ △김윤옥㉗ △김정수㉙ △김종구㉙ △김주형㊻ △김진영㉙ △김찬식㉘ △김현순㉔ △김형태㉖ △김흥걸㉚ △명로승㉕ △박상곤㉚ △박윤흔㉕ △박인수㉗ △백창수㉖ △송재웅㉑ △신기남㉚ △신동희㉔ △신현일㉗ △심명수㉓ △심태식㊼ △이기배㉑ △이세창㉗ △이여성㉓ △이종백㉚ △이종순㉗ △이주영㉚ △이찬진㉓ △이춘성㉔ △이홍훈㉕ △임규운㉓ △임인택㉘ △장호중㊺ △정계성㉙ △정도출㉘ △조해근㉘ △차한성㉒ △최근선㉔ △최기정㉚ △최민호㉘ △최연희㉔ △최진수㉚ △최창호㊹ △현병무㉜ △현종찬㉔ △황봉환㉓ △황찬홍㉕

◆사대 △강사민㉕ △김영자㉖ △김학천㉙ △김혜경㉚ △박종달㊾ △박효석㉚ △변재익㉕ △신영준㊶ △엄영주㉖ △이순권㉑ △장 호㉖ △장종택㉕ △차준영㉒ △최동훈㉙ △하현준㉘ △한용술㉑ △한철우㉑

◆상대 △강승구㉕ △김대식㉚ △김종국㉕ △김철영㉚ △김태동㉕ △김태두㉚ △김택희㉚ △남영우㉙ △박영조㉑ △심재석㉔ △우완식㉗ △윤영석㉘ △윤은용㉗ △이동혁㉕ △이현락㉒ △장만화㉖ △장시원㉚ △제갈정웅㉕ △조대연㊺ △최성호㉙ △최진만㉕ △표계영㉘ △하진수㉙ △한찬수㉔ △홍영극㉚

◆생활대 △서혜석㉓ △조성교㉙

◆수의대 △김홍욱㉔ △박근하㉖ △박호인㉑ △신 심㉗ △이 준㉒ △이강문㉚ △장광호㉕ △주현식㉓ △하태은㊿

◆약대 △강창율㉓ △공영석㉗ △구창휘㉔ △김광순㉙ △김동현㉖ △김미령㉔ △서한익㉑ △손인자㉙ △유 연㉚ △윤효선㉓ △이가평㉚ △이세복㉔ △이종규㉗ △최선식㉔ △최학배㉖ △홍정근㉓ △황봉자㉑

◆음대 △유행웅㉚ △이숙미㉔

◆의대 △강진영㉗ △김경환㊻ △김병국㉔ △김병수㉔ △김세경㉙ △김정구㉚ △나명훈㉖ △문효중㊹ △박상홍㉔ △신기철㉕ △양영식㉖ △윤여학㉓ △이관희㉕ △이병훈㉚ △이용찬㉕ △정규병㉕ △정종환㉖ △황정운㉔

◆치대 △김경원㉚ △김천식㉑ △김현풍㉚ △박영길㉔ △박옥련㉓ △박종만㉚ △박행운㉖ △양원식㉗ △윤학영㉒ △이문한㉑ △이영대㉚ △이재윤㉖ △이희주㉗ △정건용㉒ △진윤수㉚

◆대학원 △김흥렬㉑ △박명호㉖ △임병빈㉒ △임장수㉒ △정우남㉑ △최원회㉑

◆보대원 △김병환㉕ △이기남㉕

◆행대원 △김상영㉕ △김종길㉓ △백상승㉑ △석호익㉘ △이계탁㉒ △이채호㉘

◆환대원 △김수철㉖ △김희병㉓ △정양희㉙

◆AMP △강봉희㉖ △권영선③ △김승배㊺ △김재옥⑪ △김천수⑯ △김혜삼㉑ △문우행㊸ △신성우㉜ △오병제㉑ △전용배㉗ △정광훈㊼ △정연동㊽ △최윤신㊼ △한규범㊷ △황복현㊺

◆AIP △강봉기㉚ △강석대⑮ △김동하㉙ △김서곤⑪ △김용석㉕ △박성우㉜ △이대만㉔ △이동시㉝ △이충언⑭ △임우근⑦ △정창현⑳ △함돈식⑱

◆ACAD △김종락㉘ △노흥준㉙ △박찬국㉔ △신은우㉖ △원광호㉖ △이희수㊾ △임수진㉖ △지난식㉑ △황갑주㊽

◆ABP △신상민④ △안우진⑧ △정시택㉓

◆SGS △강택상⑦ △윤정섭④ △이용일③ △이창근① △정두용⑧

◆APC △장신현③

◆HPM △김강회⑪ △김광태② △선덕남④ △성수자⑲ △성현제⑦ △이철희④ △이충섭⑧

◆AIC △김동철⑧ △이정재② △문제민④

◆AFB △장현성④

◆AMPFRI △김정식③

◆ACPMP △윤백호④

◆FIP △김철호⑭ △정경인⑬ △채택병⑫

◆GLP

일 반

◆인문대 △강미정㊼ △고성필㊽ △고인숙㉒ △권기욱㊷ △김기옥⑤ △김선아㉝ △김유철㊷ △김형구㉓ △박은범㉝ △손종호㉙ △오성민㊼ △윤석진㊽ △이대상㉕ △이명우㉓ △이용운㊿ △임호현㉔ △조연수㊾ △주영진㉚ △진미정㉓ △최윤영㉓ △황효성㉒

◆사회대 △강승준㊹ △권영종㊶ △김동현㊿ △김영욱㊿ △김진호㉑ △김찬훈㊸ △김택수㊸ △김현민㉑ △류재준㊹ △박지청㉚ △백승주㉝ △서의곤㊶ △신계용㊷ △심보선㊽ △안종근㊽ △양관수㉑ △유시찬㉔ △이근우㉑ △이나형㊿ △이상학㊹ △이세준㊷ △이승원㊹ △이우상㉙ △이윤희㊿ △이장영㉔ △이주옥㊿ △전지훈㉙ △제민호㊷ △조덕현㉙ △조현진㊺ △주명훈㉚ △천석규㊷ △하대승㊸ △홍성창㊾

◆자연대 △강석기㊼ △공용택㊼ △김광준㊶ △김복기㉚ △김석진㉘ △김운오㊺ △김은희㊼ △김태원㉝ △김호신㉘ △박진호㉕ △신수원㉑ △안득수㉒ △오근찬㊼ △이동영㉑ △이명웅㉗ △이승환㊾ △이용원㉚ △이응규㊸ △이창환㊺ △장경래㊺ △정범서㊶ △정해원㉒ △최나락㉘ △최선립㉓ △최진혁㉗

◆간호대 △김경화㊸

◆경영대 △김 신㉕ △김영욱㉗ △김완중㊾ △김지헌㊽ △김호민㉓ △박동원㉗ △박채균㊼ △신일수㊽ △양승석㉑ △이강원㊽ △이석윤㉚ △이용호㉔ △이재욱㊽ △임재현㊾ △장기룡㉗ △장정주㊺ △정은주㊿ △허일섭㉓

◆공대 △강문중㉔ △강승주㉚ △강영택㉓ △강철우㉓ △강태갑㉙ △강태안㊺ △강태준㉓ △고동일㉑ △구양현㉙ △권경덕㉒ △권하욱㉖ △길기빈㉘ △김대익㉔ △김동국㉑ △김동휘㊼ △김범수㉑ △김범수㊾ △김병준㉘ △김선민㉓ △김선호㉕ △김성진㉔ △김세영㉚ △김세준㊸ △김승욱㊶ △김엽동㉜ △김영조㉘ △김인영㉒ △김임수㉗ △김재경㉗ △김재홍㉙ △김재환㊿ △김정현㊶ △김종효㉖ △김진규㉔ △김춘현㊽ △김충은㉙ △김학준㉒ △김현환㉒ △김흥기㉕ △나영욱㉓ △남시도㉗ △남원창㉓ △노상훈㉒ △류무열㉗ △류세열㊻ △류철호㉗ △문형석㊿ △박건규㊷ △박동환㉗ △박용성㉕ △박초아㉓ △방호영㉔ △배광준㉙ △배상호㉘ △변선호㉙ △변성우㊷ △변승욱㉑ △변정근㉜ △서동준㉖ △서병은㉘ △서인원㉜ △서정욱㉝ △송원영㉖ △송정식㉗ △신경식㊾ △신순철㉙ △신승하㉙ △신지영㉓ △신필수㉙ △심재덕㉕ △심혜원㉙ △안종린㊿ △양성한㉜ △엄응식㉒

△오상희88 △오성근58 △유종오94
△유희봉66 △윤상로68 △윤형돈94
△이경훈87 △이동린56 △이범재73
△이상산80 △이상선84 △이상춘68
△이선영03 △이성기58 △이용권78
△이우현52 △이윤식55 △이인화96
△이재선95 △이정식66 △이종민01
△이종석58 △이종윤03 △이준영04
△이준희01 △이중원94 △이지환04
△이천만91 △이청원67 △이형원04
△이홍석99 △임병준87 △임종호96
△장세헌41 △장철호00 △전민호93
△전익수79 △전홍기69 △정석현51
△조승현85 △조용섭75 △조종규74
△진명혁49 △최금영64 △최두영01
△최정우84 △최택상76 △최호진78
△한상윤51 △한창희85 △함석진96
△허승진02 △홍석환98 △홍성관61
△황재영81

◆농대 △강우상64 △강인섭73
△강형우00 △고영규84 △김 삼74
△김갑균65 △김기철91 △김도연03
△김병만71 △김상철48 △김성환94
△김승로01 △김영택55 △김윤조89
△김이기80 △김종수61 △김준호86
△김찬조49 △김한태83 △김헌수55
△김현규76 △노재후60 △류병후73
△문양수82 △민경훈05 △박관식54
△박상순86 △박성찬93 △박영기68
△박재욱59 △박정덕55 △변영숙70
△서대원05 △손광훈62 △손동현02
△송창섭63 △신동헌86 △양대성98
△양동섭90 △양두석51 △엄태영53
△여규동66 △예경희78 △오성광80
△유종근86 △윤기직82 △윤여성76
△이경휘55 △이광웅61 △이무영80
△이석주54 △이선기90 △이승억57
△이영치61 △이유진03 △이종화51
△이진우96 △이춘녕36 △이형주77
△임노현57 △임성만84 △장남산87
△정동원81 △정연흥57 △정용복51
△정태수81 △조상돈81 △최중경70
△홍순룡66

◆문리대 △김광규60 △김준기61
△박태동68 △서건일58 △서정태55
△선영희53 △신 협61 △오상환52
△오세한66 △원인기66 △이광웅59
△이긍희66 △이원구50 △이재승59
△이정순63 △이현옥52 △임 홍68
△임동규55 △임창근59 △전무배52
△전석홍54 △전우순47 △정동표58
△조규광48 △최충경64 △최형민69
△홍승국46 △홍승호59

◆미대 △김경수56 △김경숙63
△김승민98 △김용환85 △김유숙89
△김정숙57 △김지명69 △서원영85
△송근영86 △오병인57 △이현정83
△임방자59 △임채욱95 △장혜진01

◆법대 △경수진03 △공영규59
△곽상민98 △권 희88 △권기수73
△권영철67 △김 창83 △김경선78
△김규연61 △김민기91 △김병직76
△김봉환46 △김상우96 △김영훈71
△김유동86 △김의석85 △김재정82
△김정일97 △김종철69 △김주원82
△김진오72 △김형표56 △나경식58
△노생만81 △목승호01 △문정두60
△박규은86 △박영우53 △배기운71
△서상원57 △서헌진57 △석광세59
△성민영01 △송민호97 △송주희00
△안기영36 △안재호87 △양승권61
△오석환51 △오효민95 △육창우85
△윤우진71 △윤진호63 △이계영48
△이관형57 △이용남59 △이용희57
△이준희68 △이하우58 △임영호77
△장영효65 △장홍선84 △전원열84
△전화수69 △정 운83 △정민정94
△정성문83 △정성한87 △정원일95
△정치근50 △정하성59 △정학철64
△조복행73 △조윤희86 △조정만56
△조준연85 △최기선64 △최영룡78
△최창용85 △한상태56 △한승철82
△허 만76 △허영범88 △홍주관66

◆사대 △고재효85 △김경모81
△김관섭79 △김기련02 △김병호02
△김상수78 △김성태54 △김완복76
△김필수57 △김학수49 △김혜선02
△남유선04 △남창렬65 △도회권96
△박강진83 △박영숙41 △박인호53
△박제학50 △변희주70 △서재현82
△서태근56 △손수일48 △신평호73
△신형범73 △양인환52 △유남두57
△윤학진59 △이경남59 △이달덕70
△이도영69 △이상규56 △이장호55
△이태웅71 △이태준48 △이훈상65
△이흥훈81 △장완배61 △장은영92
△장준호56 △장철희06 △전대천80
△전두권74 △정운긍71 △정운영76
△정원섭57 △정인형65 △제옥례33
△조진수00 △차은진05 △최용섭54
△최준홍80 △최지순83 △한준수76
△한중수76 △황남택64 △황현자76

◆상대 △김길환59 △김용상65
△김재수58 △김진주60 △김태구59
△박두섭56 △백기환53 △서청원64
△성기호59 △송재유52 △이규종65
△이대영64 △이진설57 △정희경60
△조삼국60 △한희영49 △홍성인56
△홍순태56 △황정길62

◆생활대 △권다빈03 △김경숙82
△김보람98 △김효순82 △박인경00
△신민섭82 △오현숙68 △음봉현03
△이경희87 △이미자81 △이신영82
△이지수00 △정정기90 △정현우00
△조창화98

◆수의대 △곽기종55 △길혜명05
△김길성60 △김재권62 △박노극64
△서승창54 △손태영49 △송준상66
△이종덕58 △이종화53 △정 식85
△최지희97 △한인식64

◆약대 △권성배67 △김사웅65
△김석린57 △김영옥82 △박찬일74
△신국현58 △안순혁80 △윤홍중55
△이관순61 △이석만58 △이성우67
△이진규79 △이진희02 △임현정68
△정대인67 △주춘대54 △최용식61
△허 용47 △황정혜01

◆음대 △김명규73 △김홍박00
△남지현85 △서동일70 △서재민82
△신규곤81 △심현숙73 △오유애76
△이소현93 △이종석72 △전소영80
△정혜선81 △조대현97 △조용경04
△차경아87 △최은주85 △한태원73

◆의대 △김길남75 △김동수83
△김수길66 △김인호71 △김지철86
△김찬옥47 △김효준84 △라윤찬01
△명승재86 △박윤근87 △백낙형54
△성정준87 △송원식69 △신주호81
△심금숙99 △양솔몬00 △양승오75
△오형석03 △이근찬84 △이석배92
△이정균56 △이종혁55 △이중표53
△이현주91 △이호균81 △이호성62
△임경환01 △전성규03 △정장진50
△정준호84 △조맹제69 △조승연83
△주정화52 △지영미80 △차정인97
△최기영83 △최동호81

◆치대 △강석봉55 △강호경53
△고진수58 △고희숙92 △권오균71
△김경남72 △김문기66 △김재범00
△김진태78 △김진환95 △김태성71
△박상규00 △박용학58 △박이재60
△박재용98 △백승훈96 △서지혜05
△성철제63 △손일수71 △안석준89
△여인호79 △은세원81 △이건섭54
△이덕근57 △이종혁04 △조경석79
△조효선70 △최승훈81 △황현상77

◆대학원 △강희돈76 △김동식85
△문재석80 △박병근92 △백진호96
△심삼보85 △안충환91 △오성삼77
△조완석80 △황인자78 △황종로80

◆경대원 △박정남69 △송양호88
△조의식90

◆국대원 △김경연05

◆보대원 △박명자69 △박주홍94
△박형언87 △여운식96 △이송권71
△정정근87

◆행대원 △고재윤82 △김동연84
△박병련82 △서성민06 △정병철77
△정효성82 △한동범81 △허성두71

◆환대원 △박봉우79 △송장복75
△이만형81 △이정미01 △정진용87

◆AMP △강만희51 △김광헌55
△김광호46 △김승호② △민영복42
△박윤택64 △박인준38 △방상우31
△심행진16 △안기종64 △양재열59
△오형근48 △유시종19 △윤철주64
△이태섭⑤ △임창섭14 △장명웅40
△조내벽31 △조방래40 △조영진42
△최대업31 △한 훈18 △허경욱46
△황국종23

◆AIP △강용석23 △구향옥37
△김덕제34 △김순택⑥ △문갑석②
△박형주17 △성필선36 △손인국④
△심영복38 △원석동19 △정정호34
△조병하28 △최경훈28 △한동훈38

◆ACAD △김기성52 △김성헌40
△김홍원35 △박기철39 △박명서27
△박용식61 △백갑종52 △유성훈34
△유재필23 △윤기섭53 △윤석준33
△이관범20 △이종석61

◆ABP △김효재18 △박인규10
△박재선19 △심원경⑤ △이규현26
△이근중⑧ △정공훈22 △조동석24

◆SGS △권오신⑤ △연영숙17

◆CHCN △전희숙10

◆APC △김선주⑦ △박기정③
△서평곤⑤ △안성한① △이용성④
△정철호⑧ △주재헌④

◆HPM △김경수22 △김병수⑨
△김봉수21 △김영환21 △김정희22
△김중기21 △박제상14 △박형규22
△이동석12 △이영만14 △이인재10
△조길자12 △조태현21 △최병례21
△최봉영22

◆AMPP △김명남⑤

◆AIC △김종걸10 △송용팔①
△신우근④ △이종대18 △조은상18
△최광용①

◆AFB △김지미⑦ △최춘선⑦

◆AMPFRI △곽보현20 △김양자13
△손태천13 △송희순20 △이학운21
△천병기19

◆ACPMP △김구열④ △김용각①
△오두석① △임종근③

◆FIP △안선원① △이부일②
△이철우② △장성옥⑤ △정모세④
△강대구⑨ △고영상11 △곽기형17
△김용태17 △김용학16 △김원철15
△김진배14 △박욱영14 △심상운14
△임흥택17 △정연택10 △정재기17
△조좌진17 △차상복③ △채수인11
△홍완철14

◆ALP △윤종현⑥ △이국동⑥
△장일석④ △허영호④

◆SPARC △배인열13 △이환채②
△조혜자13

1 월 계 :	105,150,000원
평생회비 :	53,770,000원
입 회 비 :	10,000원
총 계 :	158,930,000원